

速記界

第 37 號

大韓速記協會

- 권두언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권용태
- 신년사 변화만이 살 길이다/최황수
- 인터뷰 신임계장님들, 우리도 한마디.../정향인
- 논단 수문의 원리와 실제(上)/홍기표
- 보고서 일본·호주의회 시찰보고서/김덕진
- 해외정보 스위스연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발간/국제부
- 세미나 제8회 속기학술세미나/최윤정
- 옆에서 본 속기사 음지에 핀 들꽃이 아름다운 이유/김만권
- 단기 해외연수 이탈리아 여행기/이미정
- 특집 I 기록문화의 현실과 기록관리체제 구축/조영삼
- 특집 II 왕조시대의 기록물 보존관리/유순태
- 시 비와 바람 그리고 비/김영서
- 제언 속기보다 더 사랑하는 속기사들/윤태원
- 지방의회탐방 송파구의회를 찾아서/장미경
- 콩트 烏賊魚序說/이정구
- 회원동산
 - 부칠 수 없는 편지/김재학
 - 추억 속에 간직된 속기/전난영
- 새내기 속기사
 - 2000년을 보내며.../박정현
 -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주정순
- 협회동정
- 회원동정
- 편집후기
- 속기협회요금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21세기를 밝히는 첫 동이 났습니다.

지난해 이 즈음 우리는 새 천년을 여는 해를 맞이하여 벅찬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우리는 어떠한 했습니까?

남북공동선언과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 외에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IMF 체제를 벗어나는 가 싶더니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각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의 칼바람은 이 겨울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속기계가 이 나라의 기록문화를 견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속도의 시대속에서 '기록'이란 것은 마치 하찮은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생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기록을 하는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례로 우리는 작년에 일본과의 어업협상에서 어업에 관한 기록이 충분치 않아 결국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어쩌면 그동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록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겪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날 그대로의 방식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우리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할



회장직무대행 권용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상품, 정보의 국경이 사라지고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규범은 국제기구의 틀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며 부
와 힘의 원천이 산업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
다.

회원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
화를 제대로 읽고 우리 협회가 일치된 노력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회원 모두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
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소극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협회 일을 내 일
처럼 생각하고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 여러분 각자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
쟁시대에 참여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와 고도의 생산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내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
은 희망이 없다는 것일 뿐 하나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외부로부
터 오는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진짜 21세기를 맞이합시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록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일에 앞장섭시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대한속기협회이사장 최 황 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함께 지니고 출발한 21세기도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의 역사는 단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의 정립과 순응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7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동안 저에게도 변화의 요구가 고비고비마다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역사학자인 다윈(C. Darwin)은 일찍이 "가장 강하거나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 생존하는 것"이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자생존의 원리는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사라지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떤 문명권에서든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집단에서



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억을 소중히 발전, 승화시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기록'이라는 수단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즉 기록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는 보존되고 관리되고 숙고와 반성을 거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비로소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빠르게 변해 가고 있어서 기록의 방식 또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42차 인터스테노 총회와 작년 호주의회 시찰을 통한 경험에서 선진 속기제는 첨단과학을 속기에 접목하여 오늘날 음성인식을 통한 속기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변화는 지난 100년간의 변화와 견줄 수 있을만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이때에 협회 역시 해야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실시간속기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며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에의 참여, 속기학술세미나 등 연례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대동단결하여 협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나라 속기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21세기 대한속기협회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신임계장님들, 우리도 한마디...

정향인

지난해 4월 승진시험에 합격하신 후 6개월여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신 세분의 신임계장님들을 모시고 햇병아리 계장으로서 그동안의 악전고투와 앞으로의 설계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 소감을 한 말씀...

▷최예숙 사무관 : 흔히들 말하듯이 승진은 노력과 운이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인내를 요하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안타까운 시선들, 따뜻한 격려, 때로는 아팠던 자극들까지 그 모두를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희생을 통해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권영찬 사무관 : 승진소식을 접하고 담담한 마음을 가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부담감과 중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란희 사무관 :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시험이란 운도 반이 상 따른다고 했는데 저에게 그 행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뭘 특별히 잘 해서라기보다도요. 따라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선배님들께 죄송합니다.



◀ 최혜숙 사무관

현장을 누비며 실무를 할때와 계장님으로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최혜숙 : 먼저 실무자로 일할 때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만 착오 없이 성실히 수행하면 되었지요. 그러나 계장의 업무는 사뭇 다르더군요. 실무때보다 업

무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즉 실무시절에는 주로 집행측면에 중점이 있었다면 계장의 업무는 집행과 함께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계원 모두에 대해 항상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하며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의 위치에서 전달벨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등의 차이점입니다.

▷권영찬 : 실무할 때는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는데 계장업무는 권한은 거의 없고 책임만 많이 요구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란희 사무관

▷김란희 : 시원섭섭하다면 맞는 말일까요? 승진 전에 서무업무를 볼 때 동료 분들이 국감을 떠나고 생생한 회의장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면 왠지 서운했거든요. 그 비슷한 심정도 들었구요. 위와 아래의 통로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많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얼떨떨한 기분 이구요.

계장님으로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최혜숙 : 저는 속기업무의 전산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편집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연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늘 '유보된 과제'로 남아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컴퓨터는 곧 '현실'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였으며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격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새벽에 나와 연수국 전 산교육프로그램의 기초반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차차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되었지요. 더구나 특위담당이라서 청문회와 같은 익일발간회의록 원고를 취합하면 각 계에서 넘어온 파일을 즉시 결합하여 시간시간마다 지체없이 인쇄소에 나가 있는 편집팀에게 e-메일로 보내야 하는 일은 정말 진땀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계원들의 이해와 도움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찬 : 민주적 리더십이 접목될 수 있도록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란희 :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두번째는 정말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 사람 수만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내 것만이 절대선이 아님을 크게 느끼게 됨으로써 제 자신이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윗 분들, 즉 관리자 분들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간혹 직원분들 중에 왜곡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건강해야만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깨닫고 건강 지킴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속기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최예숙 : 글썄요, 아마도 평범한 전업주부가 되어 있거나 만약 그림을 전공했다라면 지금쯤은 어엿한 화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를텐데 하는 주제넘은 상념에 가끔 잠기곤 하는데 아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겁니다.



◀ 권영찬 사무관

▷권영찬 : 인쇄소를 운영하거나 서점을 했을 가능성이 많았겠지요.

▷김란희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바로 코스를 밟아왔기에 사실 별 생각없이, 직장생활을 해왔는데요, 아마 가정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보협회사라든지 활발히 움직이는 조직에서 일했을 거예요.

10년후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최예숙 : 그때쯤이면 정년이 가까워질 무렵일텐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뭐 초로의 여인이 이젤 위의 캔버스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권영찬 :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란희 : 제가 20대 초반에 입사했을 때 40대 선배들을 보면 무척 경원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바로 그래요. 저는 20대나 똑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아마 10년 후에도 외모에서는 흰머리, 주름, 체형변화 등등이 나타나겠지만 마음은 김완선이겠죠?

만약 내게 우리 속기과를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최예숙 :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건데요. 오죽하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하나의 안으로서 속기·편집의 진정한 일원화를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속기과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기간은 속기·편집이 어정쩡한 상태로 물리적 통합이 된 96년도부터 승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동안 이원화된 상태에서 고착화된 의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도가 문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어차피 통합이 이루어진 이상 명실상부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의 일환으로써 전산화로 인해 편집직원의 업무가 크게 경감된 반면, 속기사들의 업무가 과중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직원들도 전산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속기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업무 부담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회의록 산출의 주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치 '생방송'과도 같은 속기사들의 긴장된 업무를 '녹화방송'처럼 한 템포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편집팀에서 보완해 주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개혁하고 싶습니다.

▷권영찬 : 승진제도와 속기업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욕과 사기를 고취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김란희** : 먼저 승진기회의 확대·개방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회의록에 관한 한 현재 전산파트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등등을 저희 쪽으로 가져와 조직을 좀더 전문화하고 확대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 업무라는 게 과부하가 걸리기 쉽잖아요. 해서 예전에는 임시직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속기과를 이끌어 가실 분으로서 속기과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신다면 어떻게……

▷**최예숙** : 장기적인 발전방안의 하나로서 팀제를 모색해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의 팀제란 팀 구성원이 한 위원회를 전담해서 속기·편집 모두를 처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속기·편집업무의 확실한 구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중첩화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보며 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속기·편집의 진정한 일원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직원의 전산능력 배양과 속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처럼 한 계가 2개 상임위를 맡는 것이 아니라 1개 상임위만을 전담케 한다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영찬**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업무에 속기업무를 접목시켜야만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란희** : 속기실무와 편집팀의 일원화를 통해 팀워크를 이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속기과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나가야죠. 누구라도 우리 과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도록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팀제'로 발전시켜야죠.

속기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 속기협회는 그동안 속기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친목도모, 권익신장을 위해 많이 애써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면서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찬** : 협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급직원과 사무실이 필요하며 좀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란희** : 현 이사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 딱히 바

라는 것은 없고 그저 저 자신 협회에 일조한 것이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체육대회 같은 것을 부활시켜 보면 어떨까 해요. 협회 홈페이지도 좀더 활성화시키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한 때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였던 후배들에게 계장님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세월'입니다. 오늘의 후배는 내일의 선배이고 또 속기를 위해 일생을 바칠 분들입니다. 후배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다보면 언젠가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리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기를 내심으로 바라지요. 항상 프로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프로정신이 자신이 작성한 회의록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권영찬** :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란희** : 기회란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웬 기회?" 이런 생각을 지양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도 좋고 자기발전을 위한 것도 좋고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조직과 개인에게 영광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직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존해 나가는 데도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속기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홍보부 기자)

수문의 원리와 실제(上)

홍 기 표

왜 수문을 해야 하는가

수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필요하다는 주장과 필요없다는 주장, 불필요론자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말하는 대로 정확히 써 주기만 하면 되지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대한 말이나, 말하는 이의 말투와 실수까지를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야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수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럴 듯한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단연코 반대한다. 언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 아니라면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속기의 대상은 인간의 음성언어이다. 그러나 속기록에 남는 것은 음성언어가 아니라 문자언어이다. 불필요론자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음성언어를 기능적으로 문자화해 놓으면 그것이 곧 속기업무의 전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음성언어는 말할 때의 분위기와 음성의 강약과 장단,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에 따라 의미를 달리할 때가 많다. 때로는 발언 과정에서, 청취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음성언어의 그러한 특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문자화로만 끝낼 경우 수많은 오류와 의미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의회속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일일구 그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자상의 오류와 의미의 왜곡은 속기록의 정확성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속기업무는 이러한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음성언어의 단순한 문자화가 아닌 문자언어화가 필요한 것이다. 곧 수문의 필요성이다.

한데, 수문의 기술은 속 기술을 익힌다고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음성언어는 입체적임에 비하여 문자언어는 평면적이다. 비유컨데 수문이란 다기능 복합건축의 평면도를 그리는 작업과 비슷하다 할 것



이다. 평면도에는 각층, 방, 출입구와 축척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면상의 각종 부호가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평면도만 보고도 그 건축물의 기능과 목적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평면도를 그리려면 먼저 건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수문 역시 마찬가지다. 속기사는 언어에 대한 전문가라야 한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시대의 일반적인 언어현상까지 정확히 속기록에 담을 수 있다면야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말하는 대로 정확히'는 이율배반의 이상론일 뿐이다. '말하는 대로'기록하여 언어현상을 살리다 보면 내용전달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내용상의 정확성을 챙기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성언어에 손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속기록은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한다. 말하자면 발언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음성언어의 입체성을 최대한 문자언어로 살려 내는 것, 그것이 곧 문자언어화요, 수문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수문 불필요론자라도 원고작성 중에 어느 정도의 손질은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하는 대로만 기록해 놓고 보면 속기사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를 문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깐, 그러나 지금까지 수문에 대한 글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전혀 없었다. 연구가 없으니 교육도 없었다. 어떤 원리 원칙도 없이 속기사마다 그저 자기 나름의 경험과 소견과 수준에 따라 각인각색의 속기록을 작성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기록을 읽어 보노라면 마치 얼룩송아지를 대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50년 역사를 운운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다.

이 글 역시 본격적인 연구논문 수준의 것은 못 된다. 다만, 수문의 원리와 함께 우리 속기록의 실태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속기록상의 오류 발생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수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속기인 개개인의 업무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후진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반론이다.

수문에도 원리가 있다

"우수한 속기사란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 발언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

『속기개관』(1969, 국회사무처 刊)에서 정의하고 있는 속기사에 관한 기술이다. "용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어휘력이 빈약하고 비판적 판단력을 결려한 자는 제 아무리 1급 자격증 소지자라 해도 속기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속기사의 비판적 판단이 가해지지 않은, 단순히 음성언어의 문자화로 끝난 속기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속기록이 아니다.

그러면 '속기사의 비판적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가해져야 하는 것일까?

"몇 년 후 누군가가 연설문을 찾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확성이다."

미국 대통령 문서록 편집장 마이클 설리번 씨의 인터뷰 내용이다.(신동아, 97년 11월호). 수문의 원리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말이라 하겠다.

이 말을 좀더 구체화하여 살펴보자.

첫째, 구두점을 바르게 챙긴다.

둘째, 문법을 바르게 챙긴다.

셋째, 문체를 바르게 챙긴다.

넷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챙긴다.

이 네가지 원리는 바로 수문을 함에 있어 속기사가 유념해야 할 '비판적 판단'의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 원리는 맞춤법과 문장론에 관한 문제요, 셋째 원리는 음성언어의 구어체적 특성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문제이며, 넷째 원리는 오청·오기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속기사의 지식과 이해력 등을 지적한 말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속기인들이 수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범주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속기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속기사들이 수문이 하는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고작 한다고 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문맥을 파악하면서 가하는 철저한 수문이 아니라 그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약간의 손질을 가하는 정도일 뿐이다.

위에 예시한 수문의 원리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구두점과 문법을 바르게 챙기려면 우선 맞춤법을 완전 숙지함과 아울러 그 맞춤법의 배경이 되는 표준문법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문체를 바르게 챙기려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어휘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성을 바르게 챙기려면 폭 넓은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발언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서, 청취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지해 낼 수 있는 예민한 언어감각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면 속기록에는 바로 의미의 왜곡전달로 나타나게 될 개연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속기인들이 그러한 의미의 왜곡전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나름의 맞춤법이 필요하니, 전통이 어떠하니, 청취력은 거기서 거기라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거기서 연유하는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속기술이라는 기능만 익힌 사람들이 문법이다 어휘력의 중요성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속기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사고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속성 우선의 현실론에 얽매여 기본을 간과하다 보면 날로 급변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속기록의 생명인 정확성은 갈수록 그 훼손의 도를 더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수문의 실제

1. 구두점을 바르게 쉼긴다.

구두점이란 무엇인가? 온점, 반점, 쌍점, 쌍반점, 물음표, 느낌표 따위 문장부호를 말한다(우리말 큰사전). 문장부호는 왜 필요한가?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같은 책). 특히 음성언어의 특성상 발언자의 의도나 감정을 제대로 살려 내려면 문장부호의 정확한 사용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장부호는 아예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설사 문장부호를 사용한다 해도 한글맞춤법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 나름의 전통(?)에 따른 특이한 사용법이 행해지고 있어 사람을 헛갈리게 한다. 예를 들어 보자.

① 지난 7·8월경에

한글맞춤법에 의하면, 가운뎃점(·)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3·1운동, 8·15광복절 등의 예문과 함께. 그러나 위 예문에서와 같이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는 반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8월경에

그러므로 1, 2개월/ 3, 4년 동안/ 5, 6십 명의 증인/ 7, 8백만 원/ 4, 5십 %....모두 반점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오륙십 명'이나 '칠팔백만원'처럼 관용적으로 한글로 쓰는 예가 많으며, 그렇게 써도 무방하겠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하지만,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②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2·3월동안 호화사우나 티켓이 대량으로 뿌려지고

③ 그해 오뉴월에 한 차례씩 회합을 갖기로 하고

②의 밑줄 부분은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이나 '2월과 3월, 2개월동안'을 뜻한다. 전자의 뜻으로 본다면 뒤에 설명하는 데로 '2~3개월 동안'으로, 후자라면 '2, 3월 동안'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은 본래 "5, 6월"이었던 것이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오뉴월"로 바뀌어 버렸다. '오뉴월'은 "오월과 유월, 또는 오월이나 유월이라는 뜻으로, 여름 한철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다. 양력으로는 대체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에 해당한다. 위 예문은 여름 한철에 두 차례의 회합

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5월과 6월에 각 한 차례씩' 회합을 갖기로 했다는 뜻이다. '오뉴월'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5, 6월'로 기록해야 한다. 어설픈 국어 실력이 속기록을 우스운 꼴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또 달라진다.

④ 96, 98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제정지원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발언내용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3개년치 사업실적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써 놓으면 96년도와 98년도, 2개 연도의 사업실적을 의미하게 된다. 97년도는 빠지는 것이다. 발언 의도를 정확히 살려 내려면 어떻게 써야 하겠는가. 불가불 물결표를 동원해야 한다.

-> 96~98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제정지원을 보면

⑤ 후보자RP서 80년, 96년 그 사이에는 약력을 보니까 대전·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계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아 '80년부터 96년까지'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표기상으로 보면 '80년과 96년'을 의미하게 된다. 너무나 얼토당토한 것이다. 내용에 적합한 문장부호를 찾아내어 그 뜻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후보자께서 80~96년 그 사이에는, 약력을 보니까 대전·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아니 든다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어휘를 동원할 수도 있다.

-> 후보자께서 80년부터 96년, 그 사이의 약력을 보니까

⑥ 이십사오륙일 이 삼일간만이라도

무슨 소린지 얼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말하는 대로 써 주는 것이 속기랍시고 음절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니 이런 우스운 꼴이 되었다. '24, 5, 6일'이나 '24, 25, 26일'로도 쓸수는 있겠으나, 이것 역시 음성언어 본래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한 과감히 문장부호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 24~26일, 이 3일간만이라도

내용도 한눈에 들어오고 얼마나 깔끔한가.

그런데 현재 우리 속기록에서는 물결표를 극구 못 쓰게 하고 있으나 그게 문제다. 이유는 없다. 그냥 과거부터 쓰지 않기로 했으니 쓰지 말라는

식이다. 문법이나 맞춤법과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위와 같은 우스운 표기법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설명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유 없는 전통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사전에서는 '물결표'를 '내지'의 뜻으로 쓰이거나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속기록에서 이 물결표의 적극 활용을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도 문장부호는 부록으로 엄연히 한 장(章)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마다 언어의 특성을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문장부호는 세계 공통의 부호문자이다. 세계공통의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조직이나 일개 기관에서 임의로 그 쓰임새를 달리 바꾸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무조건 익혀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다음 문장을 보라.

⑦ 농업부문의 수리시설, 관·배수시설, 개·보수비로 8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점(.)으로 미루어 볼 때 800억 원은 수리시설, 관·배수시설, 개·보수비의 3개

분야를 반영한 예산이 된다. 그러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수리시설 개보수비와 관배수시설 개보수비 2개 분야의 예산을 말하고 있다. 속기사의 어휘력과 이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예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관배수'는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이다.(표준국어대사전). '개·보수비'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역시 합성어로 처리하면 굳이 가운뎃점은 필요 없다고 본다.

-> 농업부문의 수리시설·관배수시설 개보수비로 8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⑧ 다음에는 각종 수해복구사업, 침수주택 복구사업, 제방 축조사업, 전담의 원상복구 사업 등을 위해서 긴급 지원자금 2,000억 원을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침수주택 복구사업, 제방 축조사업, 전담의 원상복구사업 등'은 '각종 수해복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다. 따라서,

-> 다음에는 각종 수해복구사업(침수주택 복구사업, 제방 축조사업, 전담의 원상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긴급 지원자금 2,000억 원을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장부호를 제대로 살려 기록해 놓으면 종합검토 과정에 불려가서 구구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설사 그 설명이 이해가 되었다 해도 고작

-> 각종 수해복구사업.....침수주택 복구사업, 제방 축조사업, 전담의 원상복구사업 등을 위해서-(후략)-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도 줄임표(...)가 동원하곤 한다. 안 쓰면 문장부호의 활용을 영 꺼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속기사들이 발언내용에 대한 판단력 부족과 문장부호의 활용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초래된 현상이라 하겠다. 다음 예문 역시 마찬가지다.

⑨ 세계노동기구 ILO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⑩ 적립금 자체가 통화팽창 인플레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노동기구'와 'ILO', '통화팽창'과 '인플레이'는 동어반복이다. 그러나 꼭 기록을 하려면 문장부호를 동원해야 한다.

-> ⑨ 세계노동기구(ILO)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 ⑩ 적립금 자체가 통화팽창(인플레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대로 기록해 주어야겠다고? 구제불능이다. '세계노동기구 ILO'식의 기능적 표기는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의 전형이다. 이렇게 속기사의 판단력을 포기하고도 어떻게 속기업무의 전문성을 주장할 것인가.

⑪ 과거 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분들을, 저는 장교도 아니고 사병 출신입니다. 사병 출신인 제가 수사하는 것도 대단히 인간적으로 곤혹스럽습니다.

말한 대로 써 주었고 이해하는 데도 아무 지장을 없다. 그러나 마침표(.)대로 두 문장으로 볼 때는 전혀 문장구조가 성립되지를 않는다. "과거 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분들을, 저는 장교도 아니고 사병 출신입니다."이게 어디 말이 되는 문장인가? 앞 뒤 문장을 완성된 문장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장부호를 동원해야 한다.

-> 과거 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분들을 사병 출신인 제가-저는 장교도 아니고 사병 출신입니다.-수사하는 것도 대단히 인간적으로 곤혹스럽습니다.

⑫ 박 위원께서는 상수원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러브호텔 신축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⑬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된다. 그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차다, 문장부호에 대한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질문이나 사실 내용을 정리, 나열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하나의 질문인 것처럼 물음표(?)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문장이 끝난 것처럼 마침표(.)를 찍어내고 있다. 당연히 반점을 찍어야 한다. 이런 속기록을 대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필자만의 병적인 증상일까.

⑭ 왜 정비기간이 적은 나라만 예를 드십니까? 프랑스와 독일, 미국은 122일 아닙니까?

같은 회의록 앞부분에서의 설명(프랑스 60일, 독일 62일) 과 내용이 달라 녹음을 찾아 대조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왜 정비기간이 적은 나라만 예를 드십니까? 프랑스와 독일..... 미국은 122일 아닙니까?

여기에 어순을 바로잡고 약간의 수문을 가해 보자.

-> 프랑스와 독일, 왜 이렇게 정비시간이 적은 나라만 예를 드십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다. 말한 그대로 기록했지만 엉뚱한 문장부호로 인해 내용이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이 외에도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다. 각자의 소견에 따른 또는 우리 나름의 불문규정(?)에 의한 문장부호의 사용이나 제한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를 제대로 숙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장부호의 오용은 대대에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문장부호의 오용으로 발언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명심할 일이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

⑮ Y2K특별법을 여야 공동 의원입법으로 제안해 놓았는데 그런 법이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수준 높은 마인드 때문에 지금 그 법이 심의가 안되고 있어요.

말한 그대로 기록했어도 문제될 게 없는 완벽한 문장이다. 그러나 발언자는 지금 Y2K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문장에서 그 비아냥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 -(전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수준 높은(?) 마인드 때문에-(후략)-

이렇게 물음표 하나만 동원해도 그 비아냥거림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장부호 하나에도 속기사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문장부호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선 문장부호의 쓰임새를 정확히 익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언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앞 뒤 문맥에 비추어 내용을 파악해 내야 한다. 이도저도 아니게 '들리는 대로'만 기록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 일가견을 피력할 때는 정말이지 귀를 막고 싶다.

2. 문법을 바르게 챙긴다.

<문법을 알아야 한다>

- ① 과거의 잘못되고 그릇된 관행을 깨기는 커녕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 ② 상급자의 지시도 없었을 뿐더러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은 더욱 아닙니다.

속기록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띄어쓰기다. 단어의 문법적 성격을 구분할 줄 모르고 기계적인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이다. '는커녕'은 한 단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르뿐더러'는 첨가형 연결어미다. 역시 붙여 써야 한다. 단어의 품사와 용언의 어미, 어간에 대한 구분 능력은 문법을 바르게 챙기기 위한 가장 기본조건이다. 문법을 바르게 챙기려면 당연히 문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 ③ 부평 선관위는 박 후보에 대해 부평의 모 식당에서 있었던 태권도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입당원서를 받은 뒤 수백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예문을 정리해 보면 "부평 선관위는..... 고발되었습니다."의 문장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혀 얼토당토한 문장구조이다. 고발된 것은 박 후보이지 부평 선관위가 아니다. 부평 선관위는 고발의 당사자다. 말을 그렇게 하였다고 그렇게 써 줄 일이 아니다. 말은 '바담뽕'이라고 했어도 속기사는 당연히 '바람뽕'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만큼 문법적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다.

-> 부평 선관위는 후보에 대해(중략)-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④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서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이유를 해명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⑤ 과제를 열심히 따는 것은 그것이 수주경쟁이지 그것이 기술경쟁이고 그것이 무슨 연구경쟁이에요?

④에서는 '을(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⑤에서는 '그것이'라는 주어 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않는다.'는 속기사의 신조를 잘못 이해하여 말하는 대로 문자화해 놓고 보니 읽는 사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한다(답답하지 않다고? 그럼 사람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특별한 의미 없이 반복되는 어휘는 과감히 지워 버리자. 특히 앞의 예문은 "보도에 의하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의 형식이다. 이러한 어휘의 반복도 정리해 주자.

-> ④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면서 재판장이 선고하는 이유를 해명했다고 합니다.

⑤번 문장 역시 마찬가지다. 없어도 될 것은 과감히 정리해 주자.

-> ⑤과제를 열심히 따는 것은 수주경쟁이지, 그것이 무슨 기술경쟁이고 연구경쟁이에요?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좋은가? 번문 시간도 절약되고, 문자언어에는 문자언어로서의 질서가 있다. 아무리 구어체 언어라 해도 읽는 이에겐 문자언어로 다가가는 이상 문자언어로서의 질서를 챙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곧 문법을 챙겨야 한다. 표준문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⑥형식적 예산에 책정으로 인해서

⑦領内の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미사일 개발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⑧선거운동을 지역군에 12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 경로당 등을 방문해 금품을 돌렸으며

⑨예산을 추경으로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관형격 조사 '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로 발음한다. 그것은 표준발음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언은 설사 '예산에'라고 했더라도 속기사는 마땅히 문법에 맞도록 '예산의'로 바로잡아 주어야 했다. 이렇게 '의'를 '에'로 기록한 것이 속기록에서는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다. '領内の'는 '域内の'의 오청이다. 상식부족에다 자음접변이라는 우리말의 음운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지역군에'는 정반대

의 경우다. 그야말로 '들리는 대로'만 썼어도 될 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한 차원 높은(?) '들리는 대로'의 기록을 남겼다. 역시 상식 부족 탓이다. '지역구 내'가 맞다. '안 되요.'는 한마디로 너무 창피하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니, 언급을 피하겠다. 이 모두가 '들리는 대로 정확히' 기록하는데서 초래되는 오류들이다.

문법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성언어를 말한 명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말한 그대로 기록하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바로잡아 주면 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던 오류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어느 선배님의 경험담 하나.

⑩그것이 직접 세하고는 관계없지만.....

위 내용이 편집 과정을 거친 뒤에는 "그것이 직접세하고는 관계없지만"으로 바뀌어 버렸더라는 것. 속기사는 말하는 대로 정확히 써 주었던만 편집 과정에서 발언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계적으로 붙여 넣음으로써 초래된 오류이다. 이런 오류가 어디 한두 가지라. 그 선배는 이런 편집 과정의 오류 발생을 막기 위해 '직접'을 '직접으로'로 바꾸어 주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보다는 문법을 바로 챙겨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문법에 맞게 어순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은 부사이다. 부사는 용언(동사나 형용사)이나 다른 부사의 앞에서 그 뜻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 따라서 '직접'이 한정하는 어휘 앞으로 옮겨 주면 된다.

-> 그것이 세하고는 직접 관계없지만.....

부사의 위치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내용도 훨씬 명료해졌고 편집 과정에서 오phan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지게 되었다.

⑪국정조사가 되기 이전에 검찰이 국정조사를 해서 굳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번문을 하다 보면 음성언어의 여운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 문자언어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문자화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위 예문과 같은 왜곡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다. '검찰'이 국정조사를 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굳이'라는 부사와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어울리지를 않는다. 어순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문이 아닐 수 없다.

-> 국정조사가 되기 이전에 굳이 국정조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⑫각종 엄청난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청소년 교육환경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주어와 서술어가 도치되어 엇치락 뒤치락할 경우에 흔히들 줄임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때도 어순을 바로잡아 주면 굳이 줄임표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각종의 엄청난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의 청소년-(후략)-

이를 좀더 문법에 충실하게 바로잡아 주면,

-> 각종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비속어들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는데-(후략)-

그러나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잡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⑬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참상을 목도하고

'日落 서산에 해 떨어지고'식의 유식한(?) 말씀이다. 문자를 써서 유식한 체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민족의 고질병인 모양, 이렇게 꼭 유식한 어휘를 보태서 말씀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이면 족할 것을 "목불인견"은 또 뭐란 말인가. 빼 버려도 내용전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⑭서울운동장 그라운드에 모여 있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이제는 외국어까지 끼어들어 사람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 '서울운동장 그라운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과 같은 형식의 발언이다. 한자어가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외국어로만 발언하는 경우가 갈수록 더해 가고 있으니,

⑮그것은 정책의 플라저리즘이요, 이모럴한 행위입니다.

한글-알파벳 혼용론자들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동어 반복일 경우는 우리말만 살려 주고, 외국어만 사용했을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바꾸어 주고 있다.

-> ⑮서울운동장에 모여 있는-(후략)-

-> ⑬ 그것은 정책의 표절이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 기구를 새로이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의 우면과위가 거세어지고/ 러시아워 시간에..... 곰곰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는, 동어반복의 유식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망가져 가는 언어현상을 그대로 기록해 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국어의 변질 과정을 후대에 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속기록의 근본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필자 또한 오락가락이다. 결론이야 어떻게 나든 문제는 해가 갈수록 속기업무가 어려워져 간다는 사실이다.

<맞춤법을 알아야 한다>

① 국민연금이 사회적 여론에 부딪혔던 것도 당장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②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③ 아랫목이 따뜻해져서 웃목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①과②에서는 '부딪치다'와 '부딪히다'가 바뀌어 버렸다. '웃목'은 '윗목'이 맞다.

맞춤법은 무조건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 국어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없이는 맞춤법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다음은 눈에 띄는 것만 대충 뽑아 본, 맞춤법이 틀린 어휘들이다.

회계년도/ 첫 년도/ 몇 연도/ 오랜동안/ 오랫동안/ 오손도손/ 헛점/ 댓가/ 잘라/ 원컨데/ 통털어/ 연거퍼/ 몇 일만에/ 선거를 치루고/ 서슴치 않고/ 짐으로 갈려고/ 밀어부치고/ 벼이삭이 피고/ 기를 못피고/ 아니예요/ 걸맞는/ 알맞는/ 한 움큼/ 발돋움/ 웬지/ 하마트면/ 우뢰소리/ 바램/ 금새/ 헤매는/ 찻수 변경/ 무릎쓰고/ 염불은 맘에 없고 젓밥에만/ 모랄 헤저드/ 우르파이라운드/ 짚차/ 메기의 추억이나 읊조리고.....

뭘가 어떻게 틀렸다는 것인지 어리병병한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짚차'는 지푸라기로 만든 차인가. '메기의 추억'은 메기 잡아먹던 추억이고?

맞춤법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이다. 띄어쓰기 규정은 한글맞춤법 전 57개 항 중에서 11개항(2항, 41~50항)이나 차지하고 있

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11개 원칙을 도외시한 채 그저 속기사는 속기사대로의 독창적인(?)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조사를 안받았다고 / 못받으셨어요./ 집계하지는 아니 합니다./ 이것보세요./ 5%가지고/ 수표가지고/ 10년동안에/ 예산 때문에/ 주가가 자꾸 떨어 지는데

가히 독보적인 문법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야 표준문법 운운하느니 차라리 쇠귀에 경을 읽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것도 좋다고 치자, 그런데 왜 같은 페이지 내에서도 띄어쓰기가 그렇게 오락가락해야 하는가?

다가 와 가지고↔다가오더니/ 요구해 왔고 ↔주장해왔습니다/ 밝아오는 ↔ 밝아 오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 전력을 다 하고/ 여러번 ↔ 여러 번/ 잘 알텐데↔모를 텐데

심지어는 같은 문장 내에서도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④유신체계하에서는 긴급조치 그리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포고령 또 집시법 그리고 노동법 등과 관련된 시국사건 처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띄어쓰기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법에 관해 무관심하고 무지함의 증거일 뿐이다. 그저 그때그때 자기 소견대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의원', '본위원회'는 '본 의원', '본 위원'으로 띄어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본'이 관형사이기 때문이다. 한테 한사코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50년 전통이니 의회 전문용어니 운운하면서, 위대하도다. 속기록의 전통이여! 한글맞춤법은 그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도다, '本義員'은 붙여쓰기가 허용하지만 한글로 쓸 때는 띄어써야 한다. 이것을 한글로 쓰기 시작한 지 5~6년밖에 더 되는가. 생각 없이 붙여 써 놓고 전통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본 의원', '본 위원'이 의회전문용어라고? 그러면 '본 변호인', '본 피고인'은 법조 전문용어인가. 소가 자다가 웃겠다. 『의회대사전』 그 어디에도 '본의원', '본위원회'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본회의'는 '본 회의'써야 하느냐고? '본회의'의 '본-'은 접두사이다. 그러니 '본회의'는 파생어가 되어 붙여 써야 한다. 제발 국어사전이라도 좀 뒤져

보면서 얘기를 해라, 또 '가지고'만 나오면 무조건 붙여 놓는 사람들, 본 용언이니 보조용언이니 어쭙잡은 구별은 ×나 먹어라인가. 그 위대하신 맞춤법, 청사에 빛나라(?)

우리말에는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한눈팔다'는 보아야 할 데를 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본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 눈 팔다'처럼 띄어쓰게 되면 한쪽 눈알을 돈을 받고 판다는 (賣) 뜻이 된다. 다음 예문들은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⑤물론 형의 선고는 법원에서 할 일이겠습니까마는 검찰에서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했다면 더 엄벌에 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문에서 밑줄 부분의 주어를 찾아보라, 법원인가, 검찰인가? 문장구조상으로는 법원인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어불성설이다. 띄어쓰기를 잘못함으로 해서 발언자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

-> -(전략)-검찰에서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했다면 -(후략)-

그래도 그까짓것! 하는 실력파들(?), 다음 예문을 보라.

⑥그러니까 이삼십년 전 판례를 이유로 해서인지 안 부쳤다고 각하명령서가 본인에게 도달 안 됐더라도 효력이 있다나요.

이상할 게 뭐 있냐고? 언어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속기사로서는). 도대체 무얼 '안 붙였다'는 것인가.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문법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이의 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들리는 대로' 기록해 놓은 탓이다. 속기사에게 무슨 문법교육이냐고, 띄어쓰기가 무어 그리 중요하냐고 헛소리하는 이들, 어디 한번 얘기를 해 봐라.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이런 웃기는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그러니까 이삼십년 전 판례를 이유로 해서 -(후략)-

기계적인 띄어쓰기에 만족하면서 발언내용의 변질에는 무감각한 이들이여, 그대들은 도대체 무얼 가지고 전문직임을 자처하는가. 속기술? 어문 지식과 결합되지 않은 속기술은 한낱기능일 뿐이다. 기능적인 속기록이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 무섭지 아니한가.

<우리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①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민주 선진사회로 나가는 바람직한 도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행장실에 들렀다가 거기서 우연히 한번 만났을 뿐입니다.

③1개 청와대 비서관의 한마디에 장관이 그대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④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라인의 성력화에도 관심을 갖고

⑤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직무실에서 문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나가다(出)'와 '나아가다(進)'를 구분 못 하는 속기사, 국어실력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회의록에서 수도 없이 산견되는 오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들렸다'의 으뜸꼴은 '들르다'이다. 따라서 과거형은 '들렀다'가 되어야 한다. "1개 육군 중위가", "1개 파출소장 주제에".....'한날'을 뜻하는 '일개'를 '1개'로 아는 이들도 한둘이 아닌 것 같다.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 그러시는가.

'성력화', '직무실'은 그야말로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의 전형이다.

부정확한 어휘력 탓이다. '省力化'의 표준발음은 '생력화'요, '직무실'이 아니라 '집무실'이다. 그 외에도, 면제부/ 무형지물/ 뇌졸중/ 이양기(->移秧機)/ 동거동락/ 허구헌 날/ 유래없이/ 우라통이 치밀어서/ 전행을 일삼고/ 협작하여/ 회안한 일들이/ 스위치를 끄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정말 회안한(?) 단어들이 심심하면 눈에 띈다. 속기사가 이런 기초적인 우리말도 제대로 모른대서야. 같은 속기인으로서 낮이 뜨겁다.

⑥이것은 바리오네틱 90호짜리를 기준으로 하자면 1,000박스 분량입니다.

⑦칼슘보충영양제의 가격은 240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9,200원인데

우리말에 대한 무지는 이토록 엉뚱한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90호는 '90포(包)'로, 240종은 '240정(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실수로 인한 오타라고 제발 우기지 좀 말아라. 앞뒤로 계속 틀리면서 그것도 오타인가.

3. 문체를 바르게 챙긴다.

문체란 문장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구어체, 문어체, 논문체, 서사체 따위로 나뉜다. 속기록은 당연히 구어체다. 그런데 속기업무에서 문

체를 바르게 챙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각자 출신 지역이나 생활환경, 지식 수준, 소양에 따라 특유의 어투가 있기 마련이다. 그 어투란 발언자 고유의 어법과 어휘 억양과 같은 언어 표현의 개성적인 특성을 말한다. 문체를 바르게 챙긴다는 것은 문법적 요소를 고려하되 바로 그러한 발언자 특유의 구어체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①본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위 예문을 마음에 안 든다고 철저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

-> 본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어체 본래의 맛은 죽어 버리고 무척이나 딱딱한 문어체가 되고 말았다, 구태여 이렇게까지 바꾸어 줄 필요가 있을까?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한 이헌 정도의 구어체는 말한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도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항).

더욱 골치는 사투리다. 100% 표준말로 바꾸어 줄 수도 없고..... 다만, 사투리는 사투이대로 써 주되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은 표준발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탑새기'나 '마카', '가시내' 같은 각 지방 고유의 사투리는 그대로 살려 주자는 것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바로 하지 말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할 때 '오얏'이 사투리라하여 '자두'라고 바꾸어 주면 아무래도 발언 본래의 맛은 죽어 버리게 된다. 사투리는 발언에 토속적인 맛을 더해 주고 우리말의 다양한 어휘를 후대에 남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강간버스'나 '포리채', '살값' 같은 사투리 발음은 각각 '관광버스' '파리채' '쌀값'으로 바꿔 주어야 할 것이다. 사투리는 국어사전이나 사투리사전을 찾아보면 대개 알 수 있지만 사투리 발음은 국어사전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도 하거니와 독자들을 심히 피곤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는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②무슨 답변이 그래?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해야지, 기여, 아니여?

③그건 모두가 아는 일이구먼요, 문제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④자료를 오늘 아침까지 제출해 달라했는데 아직 제출을 얹고 있어요.

'기다'는 국어사전에서 '그것이다'의 준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면 그것이다.' '그것이야, 아니야?'로 바꾸어 주면 음성언어 고유의 맛도 사라지고 무척이나 딱딱해져 버린다.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일상화된 말이니 준말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이구먼요.'에서 어미 '-구먼'은 사투리가 아니라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다. 그러니 '-구만요.'로 고치지 말고 말한 대로 써 주어야 한다.('-구만'이 오히려 사투리다.)

'돌라졌는데'에서 어간(돌-)은 당연히 표준발음 '달-'로 바꾸어 주고, '졌'은 '고+했'으로 분리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음성언어 그대로 주어야 할 것이다. 발연자의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 역시 독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여튼 사투리 발음은 표준발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런데 중복발언이나 중언부언하는 경우는 더욱 문제다. 철저히 '말하는 대로' 기록해 버리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말하는 대로'가 곧 구어체는 아니다. 문자언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장황하게 중언부언한 것을 예문으로 옮기자면 지면이 모자라겠고, 짙막한 중복발언으로 대신한다.

⑤그래 가지고 실적보고에 들어가지요? 건교부가 몇 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했다고, 그렇지요? 실적보고 하지요?

참으로 말하는 대로 세밀히도 기록해 놓았다. 같은 질문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을 지워주든지 한 번의 질문으로 정리해 준다면 수고도 덜고 번문 시간도 훨씬 단축될 것이다.

-> 그래 가지고 실적보고에 들어가지요? 건교부가 몇 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했다고.

-> 그래 가지고 건교부가 몇 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했다고 실적보고 하지요?

⑥검찰의 편파수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검찰의 편파수사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중복발언에다 어불성설이 겹쳤다. 검찰의 편파수사를 요구하다니, 속기사로서는 좀 무신경한 사람이다. 무신경이 아니라 소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렇게 기록해 주어야 한다고?

후손들이여, 이 시대에 이토록 기가 막힌 소신과 조상들이 있었음을 길이 기억하소서.

-> 검찰의 편파수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은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⑦NATM공법이란 N은 뉴를 의미하고 A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즉 오스트리아에서 새로이 개발한, T는 터널링 M은 메쏘드입니다. 이것은 터널 굴착 공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토록 철저히 '말하는 대로' 문자화해 놓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속이 터질 것만 같다. 문자언어로서의 질서(문법)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인 듯, 그리고 우리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알파벳 좀 써 주는 것을 이렇게도 꺼리시는가.

-> NATM공법이란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즉 오트스리아에서 새로이 개발한 터널굴착 공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⑧순사 나부랭이들이 죄다 뇌물 받고 눈감아줬어! 그걸 잡아다 조지지 않고 뭐 하고 앉아 있어?

이런 비속어나 반말투야말로 '말하는 대로' 기록해 주어야 한다. 고상하게 고쳐 주지 말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교양 있게 발언하는 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함부로 뱉어 내는 말들은 절대 손대지 말고 그대로 기록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발언만 나오면 그대로 써 주는 것을 영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평소에는 '말하는 대로' 써 주는 것이 속기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4. 문법의 중요성

현재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치고 나름대로의 일가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대부분 오랜 실무 경험 속에서 축적한 생생한 일가견들이다. 또한 그 일가견에 따른 독특한 노하우가 있다. 그러나 좀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일가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문법 지식이 극히 단편적인데다 실제 번문 과정에서는 그 단편적인 지식이나마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본지식(문법)과 상관없는 노하우, 그

것은 이미 속기록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문법은 왜 필요한가. 문법은 본래 남의 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말과 글을 좀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속기사에게는 남의 말을 좀더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좀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문자언어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문법을 알아야 구두점도,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문법을 몰라도 속기는 할 수 있다. 교통법을 몰라도 보행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교통법을 모르고서는 운전은 불가능하다. 교통법에 정통할수록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효과적으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을 모르고도 속기사는 될 수 있다(제도가 그러니까). 문법에 정통하지 않아도 수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법 지식이 결여된, 어설픈 청취력과 어설픈 수문은 이미 속기록의 정확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앞에 예시한 오류들이 그 단적인 증거들이다.

그런데 이해 못 할 것은 '우리 나름의 맞춤법'을 주장하는 이들이다. 글쎄, 그가 말하는 '우리 나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현행 한글맞춤법은 표준문법(학교문법)에 근거하여 확정된 것이다. 표준문법은 대립되는 여러 학설들을 종합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맞춤법'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나름의 문법체계'를 새로 만들자는 얘기다. 가능하거나 한 얘기인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또 속기록의 통일성을 기하려면 무엇인가 지침을 내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어떤 지침? 아니, 속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한글맞춤법만 가지고는 다 담아 낼 수 없는 속기록만의 특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침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속기록만의 특성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 수필이나 논문 등 일반 글을 쓸 때와 속기록을 작성할 때 그 차이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과문의 탓인지 나는 아직도 그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글맞춤법에 준거하여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지침은 책머리 일러두기에 설명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한글맞춤법은 들여다볼 생각조차 않는 사람들이 지침을 마련

해 준다고하여 그 지침을 제대로 숙지할지도 사실은 의문이다.

어떤 이들은 한글맞춤법은 어려워 자신이 없노라고 한다. 그것도 10년 이상 실무를 해온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글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속기록은 어떻게 작성해 오고 있단 말인가. 자신이 없으면 없는 만큼 한글맞춤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아닌가. 10년 이상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다면 제아무리 언어감각이 무딘 사람이라도 맞춤법에는 이미 도사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노하우, 그것은 노가다(막일꾼)와 다를 것이 없다. 노가다의 특징은 생생한 경험의 축적에 의해 일가견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한데, 그 일가견에 집착하여 논리적 접근이나 설명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없다. 자기의 경험적 지식을 해석, 적용할 만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그 일가견이 통할 수 있는 건 노동판에서일 뿐이다. 전문가 앞에서 노가다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속기의 대상은 언어이다. 그래서 속기록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언어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이 선결조건이다. 일본 중의원 속기사양성소의 교과과정을 보면, 언어 관련 교과목이 국어표기법, 한어(漢語), 용자례(用字例), 문자학, 국어학, 언어학, 영어, 불어, 무려 8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어학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춘 이들이 만들어 내는 속기록과 기능만 익힌 이들이 만들어 내는 속기록이 그 질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오늘날 속기록이 문법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노가다식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속기문화의 비극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사초의 비극이다. 그것은 속기사가 이 땅에서 전문가의 반열에 끝내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50년의 속기사(速記士)는 바로 그러한 비극의 역사라 할 것이다. 그 비극의 청산은 이제부터라도 전면적인 문법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 속기업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속기사는 전문직이어야함을 확신하는가? 문법 지식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제일의적인 과제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문법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속기술은 한낱 기능일 뿐이다.(다음 호에 계속)

(국회사무처 속기2과, 협회자격심사위원회 간사)

일본·호주의회 시찰보고서

김 덕 진



I . 기간 : 2000.5.29(월) ~
2000.6.8(목)

II . 시찰목적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회의록 작성·발간업무에서도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즈음에 일본 및 호주의회를 시찰하고 회의록 발간과정과 전산화程度 그리고 현직속기사에 대한 재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발간에 반영함을 그 목적으로 함

III . 시찰일정 및 인원

가. 시찰일정

1. 일본속기협회 - 2000. 5. 30 (10:00-12:00)
2. 일본 중의원 - 2000. 5. 30 (13:00-16:00)
3. 호주 퀸즈랜드주의회 - 2000. 6. 2 (09:30-17:00)
4. 호주 캔버라연방의회 - 2000. 6. 5 ~ 6. 6 (10:00-17:00)

나. 시찰인원

-김덕진(협회 사업부장, 속기주사)

- 손숙자(협회 연구위원, 속기주사)
- 장미경(협회 홍보부장, 속기주사)
- 이동준(협회 연구위원, 속기주사)
- 서현숙(협회 회원, 속기주사보)

IV. 시찰처

1. 일본속기협회 및 중의원 방문

1) 시찰일정 및 면담자

- 가. 시찰일정; 일본속기협회 - 2000년 5월30일 (10:00-12:00)
일본 중의원 - 2000년 5월30일 (13:00-18:00)

나. 면담자; 일본속기협회 - 판本清 일본속기협회이사장, 中根康雄
일본속기협회부이사장, 宮田仁子일본속기협회부이사장의 1인
일본중의원 - 高橋徳光 중의원기록부장, 内田勝一 중의
원기록부 제2과장, 淺水信昭 중의원기록부부부장겸제1과장사무취급, 木村
洋一 중의원기록부제1과회의록데이터실장, 毛木克典 중의원국제부참사,
津島靖子 중의원속기사의 3인

※통역; 이인섭 주재관

2) 일본의회의 형태 및 의원 수

일본의회의 형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
원 수는 중의원이 500인, 참의원은 252인이다.

중의원의 회의는 본회의, 상임위(21개), 특별위(6개), 헌법조사회,
정치윤리심사회가 있으며 참의원은 17개의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회의장의 숫자는 중의원에 13개가 있는데 순번을 정하여 회의가 개최
된다.

3) 회의록작성에 관한 직무분담과 주요업무

회의록에 관한 업무는 중의원 기록부에서 속기부터 원고의 출고, 데
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이하 열거한 것과 같이 업
무를 세밀히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임.

① 속기현업(속기감독, 속기부감독, 주임속기사, 속기사, 속기사보)

- ㄱ. 회의장에서의 의사, 발언의 속기와 녹음

ㄴ. 속기원본의 번문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의 조사 및 녹음과의 조합.

ㄷ. 번문 후 속기원고의 제출과 데이터 등록

ㄹ. 조사지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신문정보 데이터 입력

② 전문반(속기감독)

ㄱ. 교열업무지원

ㄴ. 의원운영위원회, 정치윤리심사회, 양원협의회, 각파협의회, 속기현업집무에 잘 융합되지 않는 회의의 속기

ㄷ. 매우 바쁠 때의 속기현업집무지원

ㄹ. 속보관의 데이터 보정 등 회의록 데이터관리실 지원

ㅁ. 양성소 연수생의 실무연수지도

③ 교열(속기감독)

통상 1인 1위원회를 담당. (1 내지 복수위원회를 복수인이, 복수위원회를 1인이 담당하는 것도 있음)

ㄱ. 속기번문원고의 교열 및 회의록의 편집

ㄴ. 의사의 통칭(처음부터 끝까지 죽 듣는 것을 의미하는 뜻함)

ㄷ. 미정고 내부열람의 취급

ㄹ. 발원자(의원, 관계부처 등)로부터의 발언정정 등의 신청에 대한 대응

ㅁ. 담당위원회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등의 사전준비

ㅂ. 담당위원회의 개최예정, 심의일정 정보의 입수와 부내 전달

ㅅ. 발행 후 회의록의 정·오 점검

ㅇ. 담당위원회 이외의 교열지원

ㅈ. 본회의, 예산위원회 등의 1차 교열

ㅊ. 속기현업이 입력한 데이터의 총합

④ 편집(속기감독 및 사무직원)

ㄱ. 본회의 번문원고의 기재양식의 점검 및 의안, 보고서 등의 게재

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의 색인, 목차 등의 편집

ㄷ. 편집 후 원고의 인쇄국(대장성 인쇄국)으로의 출고

⑤ 조사(속기감독 및 사무직원)

ㄱ. 속기현업의 번문 및 교열의 편집에 필요한 조사

ㄴ. 조사에 필요한 자료, 도서의 수집, 정비 및 관리

ㄷ. 조사지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입력

⑥ 운영(속기감독 및 사무직원)

ㄱ. 속기현업의 본회의 및 위원회에의 출무운영(1조가 회의장에 속기하러 가는 것을 체크하는 듯함)

ㄴ. 출무의 기록작성, 관리

ㄷ. 번문원고를 속기현업으로부터 접수하면 분류한 뒤에 담당교열에 직접 건넨.

⑦ 중의원 속기사양성소(속기감독, 속기부감독 및 사무직원)

ㄱ. 속기사의 양성

ㄴ. 속기의 연구

⑧ 회의록 데이터의 관리(속기감독, 속기부감독, 주임속기사 및 사무직원)

기록부 제1과에 회의록 데이터관리실 설치

ㄱ. 회의록의 데이터화 및 회의록작성 시스템의 관리 운용

ㄴ. 회의록 등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운용

ㄷ. 중의원입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상의 회의록의사정보 시스템 및 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회회의록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의사정보 데이터 제공

ㄹ. 본회의 및 예산위원회의 속보판의 발행 등 의원 등에 관한 신속하고 적절한 회의록 정보의 제공

ㅁ. 데이터 보정반의 운영

ㅂ. 속기의 보조로서의 녹음에 관한 업무

⑨ 데이터 보정반(속기감독, 주임속기사)

ㄱ. 속기현업이 입력한 데이터의 교열, 최종 확정원고에 기반을 둔 보정

ㄴ. 번잡하고 바쁠 때의 속기현업 업무지원

4) 회의록 작성과정

① 속기

2인1조가 되어 업무경험이 많은 사람을 主, 적은 사람을 副로 하여 보통 1조당 10분간 속기하며 본회의 및 일부의 위원회는 5분씩 속기하기도 하는데 조가 교체될 시에는 앞, 뒤로 각 30초에서 1분 가량 겹쳐서 속기함.



녹음은 우리와 유사하게 본회의장 속기석 출입방에서 함.

② 번문

속기원문을 보고 PC로 번문하는데 전문용어나 필요한 자료는 조사부에 의뢰하여 협조를 받음.

③ 데이터실로 송부

각 조는 번문한 원고를 파일형태로 데이터실로 송부하면 데이

터실에서는 이를 교열에게 주어 검토를 맡김.

④ 교열

원고를 검토하여 다시 데이터실로 송부함.

⑤ 데이터실에서 검토된 원고를 취합함.

⑥ 대장성 인쇄소로 보냄.

⑦ 회의록 발간.

5) 회의록 보존 및 전산화

① 회의록의 보존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일본의 헌법(제57조)에 회의록 작성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비공개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등 2개가 있어 주로 사무처 직제 등을 다루는데 자주 열리지 않으며 속기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음.

② 전산화

국립국회도서관에서 199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착수하고 중의원, 참의원, 도서관 3곳에서 함께 1996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착수함.

1997년 1월20일 제140회 정기국회 개원과 발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고 거기에 본회의 회의록을 개재하기 시작함. 현재는 의원들의 토론에 해당하는 의사부분과 회의일정, 출석자 등이 표시된 부분만 검색이 가능하며 법률안, 질문주의서, 답변서 등은 검색대상이 아님.

우리의 부록에 해당하는 말미부분은 이미지자료로 축적하고 있는 듯했음.

부록부분의 텍스트화 작업은 워낙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여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검토하고 있음.

현재 126회 국회(1993년1월22일) 이후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본과회의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1회분부터의 모든 회의록은 2000년 중반을 목표로 공개예정으로 있음.

현재 개회 중에 있는 모든 회의는 TV로 중계되고 있음

6) 속기사의 양성, 채용 및 대우

① 속기사양성소

소정의 시험을 거쳐 15명 이내로 선발하여 본과 2년, 연수와 6개월 동안의 교육을 시켜 80여년 동안 우수한 속기사를 육성해 오고 있으나 해마다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음.

② 중의원 속기사 채용시험

속기시험만을 거쳐 선발하고 있음. 속기시험의 경우 분당 320자에서 340자로 10분간 낭독하는데 이를 3회 반복하여 평균 98% 이상이어야 합격함.

③ 속기사의 대우 및 지위

일본 공무원의 체계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종은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며 2종은 7급, 3종은 9급과 유사함.

속기사는 처음 채용될 시 1종의 대우를 해주고 있으나 경력이 오래될수록 봉급의 누진율이 적어져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직종의 같은 경력보다 봉급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승진은 속기사의 직급체계가 별개로 되어있어 적체되고 있다고 함.

2. 호주 퀸즈랜드 주의회 및 캔버라 연방의회 방문

1) 퀸즈랜드 주의회 방문

가. 6월2일(금) 09:30 ~ 17:00

나. Alan Watson(속기과장)과 Colin Schneider씨의 안내로 의회 시찰
1882년도에 지어진 죠지아풍의 건물인데 1977년에 현대적 시설로 보수

다. Alan Watson의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멜리사 양의 기계속기 시연

라. Raymond K. Hollis 의장 관저에서 퀸즈랜드의회 속기사 전원과
오찬

마.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

2) 캔버라 연방의회 방문

가. 6월5일(월)~6월6일(화) 10:00 ~ 17:00

나. Ian Harris(사무총장), Bernard Wright(사무차장) 등과 면담하고
한·호간의 친선 도모

다. 구 의회건물(박물관)과 신 의회건물(4,700여개의 방) 관람

라. 하원 본회의장에서 Question Time 견학

마. 의회내 인쇄소 견학

바. Trevor Fowler(본회의과장)와 회의록 작성 전반에 대해서 논의
(특히 음성인식기 부분)

사. 현직 유일한 수필속기사의 회의록 작성과정 시연

아. 한국인 가이드(호주의회 직원)의 안내로 의회 건물 다시 견학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



<퀸즈랜드 주의회>

1. 일시; 6월2일 09:30~17:00

2. 주의회 회의실 견학 및 의장(Raymond K. Hollis) 면담 후 선물 전달

3. 속기과장 사무실 및 속기사 사무실 방문

면담자; Alan Watson(속기과장), 속기사(5인) 및 편집인

4. 속기과 구성

과장, 부과장, 속기사(7인, 현원 5인), 편집 등(3인) - 속기사 5인
전원 기계속기사(CAT 이용)

5. 의원 및 회의 구성

퀵랜드 주의회는 89명의 의원, 9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됨

6. 회의시간

가을회기- 2월에서 7월까지(예산위원회 포함)

봄회기- 8월에서 12월까지

화요일(09:30~13:00, 14:30~19:30), 수요일(09:30~13:00,

14:30~19:30, 20:30~23:30), 목요일(09:30~13:00, 14:30~19:30)

7. 회의록 발간과정

- 1인당 10분씩 CAT 이용 속기 번문 후 편집인에 송부, 편집인은 내용 및 연결 체크 후 프린트 하여 Hansard Green과 함께 의원사무실로 보냄(각 의원 발언시간 2시간 이내)

- 의원사무실에서는 30분 이내로 체크하여 속기과로 다시 보내야 함(30분 이내로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단, 발언내용의 취지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의원의 정정요구의 수용 여부는 속기과장이 결정함

- 모든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합한 후 회의 산회 2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림과 동시에 정부인쇄소로 보냄

-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일회의록 150부를 발간하여 의원사무실 및 정부부처로 보내줌

cf) 1일회의록 발간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의원은 주일회의록 발간 전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1일회의록을 합쳐 주일회의록 300부를 발간하여 의원사무실, 정부부처, 도서관, 다른 주로도 보내줌

8. 회의록 발간 비용(인쇄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포함됨)

- 1일회의록; 페이지당 A\$ 10.50

- 주일회의록; 페이지당 A\$ 35.50

cf) 1988년까지는 페이지당 회의록 발간비용이 A\$ 156.81 이었으나 1989년 이후 컴퓨터를 이용하면서부터 발간비용을 페이지당 A\$

87.56로 줄여 전체 A\$ 295,227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고 지속적인 회의록 발간과정의 개선을 통하여 현재에 이름

9. 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경우도 회의록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거의 열리지 않음
(모든 토론 및 결정이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이루어짐)

10. 비공개회의

- 거의 없으나 윤리위원회의 경우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가 있음
- 비공개회의의 경우는 floppy disk에 보관하여 해당 위원회로 보냄
(속기과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음)

11. 부록

- 발언제한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의원이 요청할 때만 부록으로 실어줌
- 단, 의원은 추가 발언내용을 floppy disk 상태로 보내야 하며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언내용 뒤에 기재해 줌(글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음)

12. 전산화

- 1990년2월 이후 회의록만 인터넷에 올라 있고 CD-ROM으로도 제작되어 있음
<http://www.parliament.qld.gov.au/hansard/index.htm>

13. 채용시험과 보수 및 승진기회

- 먼저 속기시험(220words/분)을 통과한 후 영어문법, 편집, 상식시험을 통과해야 함
- 속기사의 경우는 평균 A\$ 53,000/년, 편집인의 경우는 A\$ 59,000/년 정도를 받고 있음
- 승진 및 전직기회는 거의 없고 10년 내지 12년 속기사로 근무한 후 편집인이 될 수 있음

13. 수필속기사에서 기계속기사로의 재교육

- 80년대말에 시작하였으나 1991년에 중단되었고(몇몇 현직 속기사들이 퀸즈랜드대학의 기계 속기사 양성 코스에 등록하였으나 실패함) 1991년 이후에는 기계속기사만 채용함

14. 특이사항

- 선거후 개원시 의원들을 상대로 속기과에서 회의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함
 - * 자료요청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
 - * 프린트된 회의록이 보내졌을 때 30분 이내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
 - * 의장으로부터 발언허락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고함, 야유 등을 했을 경우에는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등
- 의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발언일자 및 의원 사진과 함께 프린트하여 제공함

<캠버라 연방의회 방문>

1. 일시; 6월5일~6일, 10 :00~17:00
2. 사무총장(Ian Harris), 사무차장(Bernard Wright)과 환담 후 선물 전달
3. 연방의회 하원 Question Time 방청 및 상원 회의 참관
 - 발언시간은 1분, 답변시간은 4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발언 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질문수는 1일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4. 회의 시간
 - 월요일(12:30~23:00), 화요일(14:00~23:00), 수요일(09:30~20:00), 목요일(09:30~18:00)
 - 단, 합의에 의해 회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속기부장실, 속기과장실 및 속기사 사무실 방문
 - 면담자; John Templeton(속기부장), Trevor Fowler(본회의과장), Cindy Low(위원회과장) 및 속기스텝들
6. 속기과 구성
 - 속기부장, 속기과장(2인), 수필속기사 1인, 기계속기사 7인, 음성인식기(Voice Recognition dictation) 이용자 20인, typists 9인, 편집(속기&편집) 13인, 감독(편집) 10인
7. 의회 구성
 - 캠버라 연방의회는 상·하원 각각 76명, 148명의 의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main committee를 비롯하여 상·하원 합동상임위원회 12개, 상·하원 합동특별위원회 2개 및 상원 상임위원회 12개, 상원

특별위원회 7개와 하원 상임위원회 14개,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70여 개가 있음

- 18개의 위원회 회의장이 있음



8. 회의록 발간과정

- 모든 과정은 회의록생산시스템(Hansard Production System)에 의해 이루어짐

- 모든 회의과정이 Digital Audio sound storage에 의해 녹음됨

① 본회의, main committee의 경우

- 1인당 7분30초씩 속기 후 번문 및 편집과정을 거침(수필속기사, 기계속기사, 음성인식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는 번문후 교정작업까지 거친 후 감독인에게 송부하는 반면, typists의 경우는 번문 후 편집인의 교정을 거친 후 감독에게 송부함

- 감독은 송부된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 의원사무실로 보냈음 (각 의원 발언시간 1시간30분 이내)

- 의원사무실에서는 원고를 검토한 후 30분 이내로 되돌려 보내야 함 (되돌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체 원고를 취합하여 회의산회 시간 3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림과 동시에 의회내 인쇄소로 보냄

- 다음날 아침 발간된 1일회의록을 의원사무실 및 정부부처로 보내줌

- 1일회의록을 취합하여 주일회의록을 만듦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경우

- 모든 회의과정은 Digital Audio sound storage에 의해 녹음됨

- 각 회의마다 한 사람씩만 회의장에 상주하면서 발언자 및 특별한 사항들을 체크함
- 본회의, main committee를 우선순위로 하여 회의록을 만들고 위원회의 경우는 회의 종료후 위원회 여야대표 및 속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록 발간 완료 시한을 결정함

9. Hansard Production System(회의록 작성 시스템)

- 회의록 생성 전 과정을 관장하는 Hansard Production System의 경우는 개인 컴퓨터와 Digital Audio sound storage 및 Voice Recognition dictation과 연결되어 있는데 회의가 있을 경우 각자의 속기시간이 나와 있는 스케줄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서 나온 후 스케줄표에서 각자 이름을 클릭하면 각자 속기한 부분의 녹음이 바로 나오는데 수필속기사와 기계속기사는 편집과정까지 끝나고, 음성인식프로그램 이용자는 각자 부분의 녹음내용을 음성인식프로그램에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인식되어 컴퓨터에 나타남
- Hansard Production System은 개발하는데 14억, 2년 정도가 걸렸고 금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함
- 음성인식프로그램은 3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분당 120~130단어까지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률은 98% 정도라고 함(단, 먼저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여야 하고 학습시킨 사람의 목소리 정도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음성인식프로그램 조작법을 익히는데 6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수필속기사의 경우 기계속기사를 다시 배우기보다는 음성인식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10. 소위원회

-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의는 주로 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며 위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회의록이 만들어짐

11. 비공개회의

- 윤리위원회 등의 경우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회의록생산시스템 자체를 비공개회의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와는 자동적으로 차단됨
- 번문하여 디스켓 상태로 보관함

12. 부록

- 발언제한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의원이 요청하면 부록으로 실어줌
- 단, 의원은 추가 발언내용을 floppy disk 상태로 보내야 하며 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언내용 뒤에 기재해 줌(글씨크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음)

13. 전산화

- 1996년 이후 회의록만 인터넷에 올라 있고 CD-ROM으로도 제작되어 있음

<http://www.aph.gov.au/hansard/index.htm>

14. 채용시험과 보수 및 승진기회

- 먼저 속기시험(220words/분)을 통과한 후 영어문법, 편집, 상식시험을 통과해야 함
- 속기사의 경우는 평균 A\$ 60,000/년, 편집인의 경우는 A\$ 63,000/년 정도를 받고 있음
- 승진 및 전직기회는 거의 없고 편집인 및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상식 및 영어 문법시험을 통과해야 함
- 편집인 및 감독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한 최대한의 권한을 주기 때문에 유능한 편집인 및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함

15. 현직속기사에 대한 재교육

- 90년대초 몇몇 속기사들이 호주국립대학의 기계속기 과정에 등록하였으나 성공한 사례는 없음
- 96년 이후 음성인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계속기로의 전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함

16. 외부자원의 활용

- 2주 연속으로 열리는 예산회의시 하루 6시간과 수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상원과 하원의 점심시간 회의 각 1시간 그리고 위원회 회의중 신속하게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용역을 주는데 주로 퀸즈랜드 의회에 의뢰함
- 비용; 15분당 \$A100
- 범위; 주당 20시간을 넘지 못함

17. Main committee에 대하여(우리 나라의 전원위원회와 유사한 기능)

- 1994년에 신설됨, 제2의 본회의로 불리어지기도 함

- 회기중 수요일과 목요일 10:00에서 13:00 사이에 주로 개최됨
(회의시간은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열리지 않음)
- 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법안에 대한 세부심사, 각 위원회 및 하원에 제출된 문서에 대한 논의 등을 할 수 있음
- 하원의 가장 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고 하원의원은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맡음
- 상정의제는 여당총무가 장관과 야당총무, 비교섭단체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함
- 의사정족수는 위원장과 여야의원 1인씩을 포함하는 3인임
- 단, 이 위원회는 하원의 종속체이며 여기서 결정된 어떠한 것도 하원 본회의에서 확정됨

18. 기타

- 선거후 개원시 의원들을 상대로 속기과에서 회의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함
 - * 자료요청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
 - * 프린트된 회의록이 보내졌을 때 30분 이내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
 - * 의장으로부터 발언허락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고함, 야유 등을 했을 경우에는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등
- 연방의회 내에 인쇄소가 있어 회의록 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각종 자료(의원소개 책자, 의원 사진이 들어 있는 메모지)를 제공해 주고 있었음
- 수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번문시 혼란을 방지하고 있었음
- 승진기회 및 전직의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지 않고 질 좋은 회의록 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회의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속기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국회사무처 속기2과, 협회 사업부장)

스위스연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발간

국제부

늦어도 회의종료 3일 후에는 임시회의록 열람 가능

스위스 연방헌법 제94조에는 스위스연방의회(Federal Assembly)의 하원(National Council)과 상원(Council States) 그리고 상·하원 합동회의(United Chambers)의 종합적인 회의록 발간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은 단순히 토론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구두에 의한 진술과 연설은 물론 서류로 제출된 문서들까지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지로서 발간된다. 회의에서의 모든 구두발언은 원어로써 말한 그대로(Verbatim) 기록하는데 이를 위해서 회기 동안에 독일어·프랑스어·이태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한다.

1987년 의회의 마지막 수필속기사가 퇴직하기 훨씬 이전부터 녹음방식에 의해 회의록이 작성되어 오고 있었던 바 녹음된 것의 문자화를 위해 회의장에 있는 PC 오퍼레이터들은 1993년에 도입된 디지털 녹음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언내용을 소위 「Job」이라는 작은 녹음단위로 나눈다.

녹음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지 발췌되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사항과 연계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녹음시스템은 Job의 번호와 날짜, 시간을 자동적으로 설정하고 발언자의 이름·직위·언어·의사일정번호 등을 연계시키며 그외에 보다 더 상세한 정보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5분 단위로 분류된 Job은 디지털 녹음시스템에 의해 10명 내지 15명의 번문사(Transcribers)에게 배분되는데 이들 번문사들은 회의록 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달된 녹음된 내용을 문자화하여 초기회의록은 10명 내지 15명의 편집자들에게 보내져 검토되고 고정되어 의원들에게 보내지는데 의원들은 3일이내에 발언 자체가 아니라

표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 편집과정이 끝나서 검토 및 정정이 완료된 회의록 전문은 조판 시스템(Professional Typesetting Software)을 거친 후 데이터 통신라인을 통해 CD-ROM 형태의 회의록과 책자로 된 회의록이 완성된다. 그리고 의회 내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회의 종료 후 1~3일 후에 임시회의록을 검색 열람할 수 있으며, 1995년부터는 회기 종료 약 한 달 후에 인터넷상으로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회의록작성의 전산화 실태와 전망

스위스 연방의회는 1891년 속기국을 창설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회의록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속기사들의 업무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1945년에 Wax-Cylinder Dictaphone의 도입으로 속기사들은 그들이 속기한 내용을 더 이상 타자원에게 불러줄 필요가 없어졌으며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이 Dictaphone이 Magnetic-Foil Dictaphone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0년도부터 말을 문장으로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속기술은 의회에서의 Audio Recording(Magnetic Tape Recording) System의 도입으로 속기사들의 업무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System은 속기사들이 점차적으로 부족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단순히 속기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부족한 속기사들이 편집인들로 대체되어 속기사와 편집인들의 공동업무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1년에 도입되면서 회의록 발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회의록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장점은 긴급을 요하는 회의록을 즉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기사와 편집인들의 공동작업방식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의회의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수필속기와 함께 기계화가 추진되면서 1987년 마침내 의회에 마지막 남아있던 연방의회속기사(Stenographer)인 Mr.Bernhard Luyten이 34년간

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고야 말았다.

이후 스위스의회 회의록작성 업무는 완전히 전산화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의회사상 세계 최초로 디지털 사운드 녹음방식(Digital Sound Recording System)이 도입되었으며 직원 1인당 1대의 PC 소유로 회의록 서비스가 여태까지의 단순한 문자서비스에서 이미지, 사운드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Audio Recording과 Computing File System 방식의 종합자동녹음 처리방식이 도입되었으며 9월부터는 회의종료 후 1일 내지 3일 후에 임시회의록이 의회 내부의 컴퓨터를 통하여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회의록의 발간은 일반 타자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는 CD-ROM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회의록이 발간되기 시작했으며 한 장의 CD에는 1년간 개최된 모든 회의의 회의록이 수록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늘어난 회의시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발간비용과 시간은 반감되었다.

스위스 연방의회 회의록은 연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출판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높은 품질의 회의록 작성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회 Internet Site는 다음과 같다.

<http://www.parlament.ch>

< 참고자료 >

1. 스위스하원 자료

(Chief Editor, Francois Comment, 1998.6)

2. 스위스 주재 대사관 자료(1998.6)

제8회 속기학술세미나

최 윤 정



협회 사업부는 2000년 5월 17일[제8회 세미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준비기획단장 권영찬 회원을 비롯하여 사전답사팀장 김덕진, 선발대 팀장 안기철, 지원1팀장 김영중, 지원2팀장 이규진, 이동대책팀장 한

기수 회원은 매주 2회의 팀장회의를 거치면서 새천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돌입하였다.

행사 당일인 6월10일 오전에는 국회사무처내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에서 30명의 속기인들이 속기경기대회를 치렀고 12시30분 1호차의 출발과 함께 20여분 후에 2호차가 출발하였다. 오후 3시30분쯤 목적지인 강원도 둔내의 성우리조트에 도착했으며 선발대의 착실한 준비로 행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회원 142명과 회원가족 21명, 강사와 내빈이 5명으로 총 참가인원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점동 이사의 개회사로 막을 연 행사에서는 바쁜 국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한 지대섭 회장의 인사말씀을 권용태 부회장이 대독하였다. 지대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화시대의 자질들을 습득하고 계발하는 데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과 남북의 영원한 화합을 기원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세기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단순한 기록자의 위치에만 서 있는 속기인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21세기에 있어서 속기업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속기인의 사회적 위상 정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꽃이 피는 세미나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국회사무처 임종훈 법제실장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이라는 제목의 제1주제 발표가 있었다. 임종훈 실장은 입법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국회나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법과정을 추상적·관념적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리 입법과정이 운용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 제·개정되는 입법의 총량을 비롯한 각종 입법관련 통계와 입법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접근과 더 나아가서는 입법과 관련한 우리의 정치문화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전문위원이신 정수산 전문위원으로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2주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명지대 김익한 교수의 "기록과 역사 - 최신동향"에 대한 제3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야외에서 캠프화이어를 할 예정이었으나 꽤 많은 비로 건물 내 소강당에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열기는 기름을 붓지 않아도 캠프화이어의 장작보다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여흥시간을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간 속기인들은 1년만의 만남이어서인지 새벽까지 불을 끄지 않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내일 계획된 청태산행이 혹여라도 비로 여의치 않을까 내심 잠을 설치기도 한 밤이었다.

이튿날, 어제를 잊은 듯 쾌청한 날씨가 예정된 청태산행을 가볍게 했다. 휴양림에서 마음껏 삼림욕을 즐겼고 제공된 점심식사도 야외라서인지 무척이나 맛있게들 먹었다. 잠시의 휴식후, 최황수 이사장의 폐회사로 끝으로 아쉽지만 모든 행사의 막을 내렸으며 더 나은 내년의 행사를 기대하며 회원 각자는 인사를 나누었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협회 홍보부기자)

음지에 핀 들꽃이 아름다운 이유

김 만 권

2년여 동안 국회총리실 연락관으로서 국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회의장 어디에서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속기사 여러분들이 고맙고 정답게 느껴지다가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과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어느날 갑자기 총무회담 등을 총회 회의개최가 통보되어 오면 오후 늦게 열리게 되는 본회의·예결위는 물론 수시로 열리는 특위·상임위가 숨돌릴 겨를 없이 돌아가는 도중에도 다음날 아침에는 임시회의록이 발간된다.

그 고생은 그렇다치고 임시회의록 내용에 조그마한 티라도 있으면 이를 다그치고 또 그것을 다 받아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속기사들의 애로와 고충을 그 누가 알아 줄까 싶고, 속기록 가운데 '-.-.', 장내소란'등의 내용을 보면 그 고충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속기사로부터 정부측 답변내용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 원고대로 많은 분을 장시간 읽는 형태로 답변하다 보니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아예 내용을 잘못 읽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속기사들은 여지없이 전화해서 이를 지적해낸다. 혹자는 속기사의 실력이 행정부 증견간부 실력은 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아마도 잔밥이 많아서일까. 어쨌든 경의를 표하고 싶다.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회의장에서는 가끔 설전이 벌어진다. 해당위원의 질문이 진행 중인데도 끼어들면서 고성이나 오고 갈 때 어떻게 속기해야 할지 고심이 많을 것이며, 특히 전문분야의 어려운 용어나 외래어를 속기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속기사는 史草를 기록하는 역사의 증인이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로 공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속기사는 지방의회 등 속기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속기사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을 선도해 가는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기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의 시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회의록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원회의 의사도 속기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요지에 의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의 의사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와 소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통해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의안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 취지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그러나 속기업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면 이에 대한 인력보충과 시스템의 보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은 전혀 탄탄한 것 같아 속기사의 어려움은 물론 앞으로 속기업무 진행이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고 싶다.

국회에서도 중앙 행정부처나 지방행정부처가 마찬가지로 행정직에 비해 다른 직종, 속기직·기술직 등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본 속기사들은 각자 나름대로 어학 공부는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컴퓨터 공부, 심신수련 등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속기사들에게 마음으로도나마 힘찬 응원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속기사들의 진면목을 발휘할 날이 올 것으로 굳게 믿는다.

속기사들 파이팅!!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과장)

이탈리아 여행기

이 미 정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단어이건만, 여행을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루하게 기다리다 지쳐 포기할 즈음에 갑자기 떠난 길이라 설렘보다는 떠밀려 가는 느낌이 더 강했던 듯하다.

그러나 경비 50%지원이 어더라. 신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단기 해외연수라는 프로그램하에 회사(?)에서 경비의 반을 지원해 준다기에 최대한 내 돈을 아끼자며 꺾꺾 쑤셔 넣은 보름치 짐은 가히 나의 발걸음을 뒤로 잡아당길 만큼 무거웠지만 그래도 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내디뎠다.

여행 첫날!

여자만 셋이서 어떻게 그 험한 여행을 하느냐는 주위 분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짐 보따리를 킁킁대며 메고 3학년(30대)생들은 20대 배낭족 흉내를 내며 떠났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돌덩어리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을 메고, 영어 표지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대충 알파벳 철자와 비슷하게 쓰여진

것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며 가는 길,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역무원과 너무 높은 화폐단위(이탈리아는 인플레이 때문에 화폐가치가 낮다)에 당황, 황당하던 공항 기차역,

버스 타고 비행기로 날아서 기차로 달리고 한참을 걸어서 지하철 타고 다시 승용차 타고 온갖 교통수단을 고루 다 타며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민박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30분, 무사히 숙소로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새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다.

팔, 다리가 천근 만근 온 몸이 물에 젖은 숨 같다.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를 않으니 이를 어쩌나? 아, 험난한 앞으로의 여정이 엄청난 배낭의 무게로 전해져 오는구나!

하지만 이탈리아 여행 초기에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아 너무 불편했지만 나보다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 틈에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은 왜일까?

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고 관광지인데도 영어표지판, 영어안내판 하나 없어도 이곳은 항상 관광객으로 들끓는다. 왜냐, 그만큼 볼거리가 많으니까.



이탈리아 겨울에는 다습하고 여름에 건조해서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한다. 다습한 관계로 건물 1층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날씨가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뜨거운 태양 때문인지 이곳 사람들이 더 정열적이다.

그리고 이곳은 소형차를 선호해서 그런지 마티즈가 최고 인기상품이란 말에 뿌듯해지면서 내가 마티즈를 만들어 판 사람인 듯 자부심이 생겼다.

집 떠난 지 둘째 날

본격적인 관광객이 된 날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고 나와서 유로패스 도장 찍고 기차 시간 알아보고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베네치아광장, 포로로마노, 콜로세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진실의 마르첼로극장가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나보나광장, 트레비샘, 스페인광장 등 하루 종일 다리 품을 팔면서 힘들게 돌아다녔지만 웬만한 곳은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나게 다녔다. 부지런히 다니면 하루만에 가능한 일정이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유적지이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조차도 로마시대에 깔아 놓은 돌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말이 끄는 마차 대신 자동차가 그 위를 달리는 것만 달라졌을 뿐, 어쩔 이렇게 옛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저 감탄하고 부러울 뿐이다.

이곳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난 덕에(관광수입)먹고 사는 것 같다.

바티칸은 그 자체가 종교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다 허물어졌지만 포로로마노에서는 옛 로마의 융성했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콜로세움 위를 걸으며 잠시나마 옛 로마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곳은 곳곳에 항상 예쁜 분수가 있다. 트레비분수에 가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동전을 던지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사람들 속에 밟힐 뻔했고 스페인광장 계단에 가서는 다국적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서 젊음을 뽐내며 한국에서 온 귀여운 아그들과 수다 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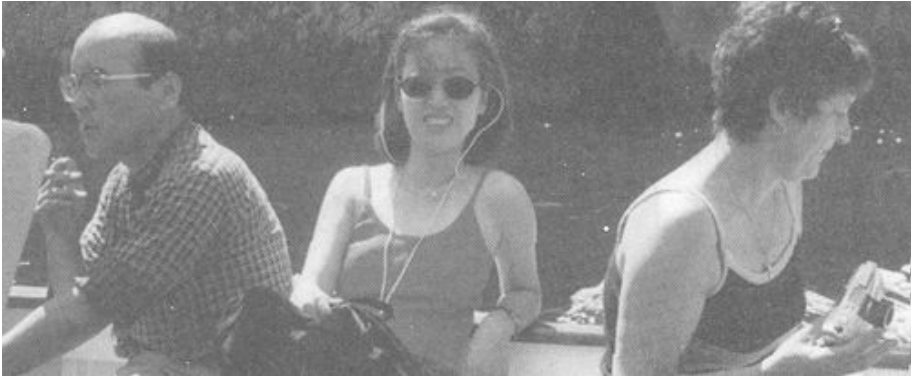
바티칸 시국 가는 버스에는 도둑만 관광객 반이라는 소리에 온갖 도둑맞은 사람들의 무용담(?)에 긴장하며 다녔으나 서울생활 10여 년에 서울 깽쟁이 다 되었다.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네, 한푼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마친 날이었다.

떠나기 전에 누가 유럽을 다 둘러 본 뒤에 이탈리아를 가라고 충고해주었던 말이 새삼 생각난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를 먼저 보면 다른 유럽이 실망스러운 곳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 이탈리아에서 한국 사람을 제일 많이 본 것 같다. 사방 곳곳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들이다. 이탈리아에 한국인이 다 모였으니 이때쯤 한국은 텅텅 비었을라나.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이탈리아인들을 먹여 살리건만 이곳에서는 영어·일어·중국어 안내팜플렛은 있어도 한국어 안내팜플렛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힘없는 나라 백성의 설움인가?(매우 분개했음)



우아한 관람객이 되어 볼 겸 이곳음식을 제대로 먹어 볼 겸 멋부리다 엄청난 바가지에 다시는 레스토랑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한 하루, 이탈리아는 남쪽과 북쪽의 경제력 차이가 심해서 남쪽 관광지인 이곳 로마는 바가지가 심하다.

셋째 날!

이름 값 못하는 나폴리 : 세계 3대 미항이라는 나폴리는 어디 가고 개똥만 난무하는가? 나폴리의 일부밖에 못 보았지만 전체를 다 본 듯 지저분한 항구 도시의 이미지밖에 없음에 실망한 날이었다.

카프리섬과 푸른 동굴 : 나폴리에서의 실망감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준 곳, 3일치 경비를 하루에 다 쏟아 부었지만 아깝지 않은 곳 카프리, 내리쬐는 햇빛 아래 남국의 이국적인 풍경을 마음껏 내보이는 곳이다.

출렁출렁 들어왔다 빠지는 과도에 맞추어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햇빛에 반사되는 푸르스름한 물빛은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어서 저절로 애인 생각이 나는 곳이 푸른 동굴이다.

정열적인 이탈리아인답게 노를 저으며 플라시도 도밍고 뽀치게 노래를 잘 부르는 뱃사공들은 모두 카수, 이들 모두가 카프리섬 여행의 맛을 더해 준다.

우리가 떠나는 날이라고 된장국에 김치로 한식 밥상을 차려주는, 너무나 친절할 민박집 새내기부부, 헤어지기가 못내 참 아쉬운 사람들이었다. 부디 성악으로 크게 성공하시길 빈다.



넷째 날

피렌체는 아담하고 깨끗한 도시이다. 마치 중세도시 속을 현대인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상상을 하면 딱 들어맞는 곳이 피렌체이다.

거의 모든 건물이 옛 건물 그대로이기 때문에 호텔도 돌로 지은 일반 주택을 내부만 개조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텔이나 숙박업소와는 다르다.

이 또한 색다른 재미라고도 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남부와 북부의 경제력이 차이가 많아서 가난한 남쪽의 바가지가 훨씬 심하고 좀도둑도 많다. 그래서 북쪽 도시인 피렌체는 깨끗하고 상점들도 훨씬 감각적이다.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날,

베네치아. 산타루치아역 광장으로 나오면 바로 코앞에 도로 대신 수로가 펼쳐져 있고 버스 대신 배가 뚱뚱 떠 있다. 로마 스페인광장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난 반가웠다. 스위스, 프랑스 동전을 얻다니 웬 황제!

골목길도 수로로 이어진 미로의 연속이라네. - 서울에서는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 좁은 미로를 헤집고 다니는 맛도 색달랐다.

이곳 이탈리아 사람들은 버는 것보다는 노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지라 오후 4, 5시가 되면 관광객과 상관없이 문을 닫는 가게가 많다. 무라노섬에 가면 유리세공품이 많다가에 이따가 구경하고 난 후에 사야지 마음먹고 돌아올 때 그 가게를 찾았는데 문을 닫아버린 것을 보고는 참 어이가 없었다.

5일간의 이탈리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밤기차에 몸을 싣고 한여름에 겨울 속에 있는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가서는 생전 처음으로 고산증을 경험해 보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국경 없는 국경을 넘어 이웃 동네 놀러 가듯이 여

권 심사도 없이 1시간만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의 신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영국에서는 뮤지컬에 열광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곳이 영국의 수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지금껏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탈리아에서의 여행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을 여행할 사람들에게는 이탈리아를 꼭 가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행을 마치며

유럽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편리한 교통수단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특히 여행자의 눈높이와 주머니 사정에 맞춘 상품이 다양해서 참 좋았다.

그리고 옛 건물이 거의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보존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가 너무 미국적 사고와 문화(언어 등)에 익숙하게 젖어 있다는 것을 많이 실감한 여행이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유료화장실에다 영어 안내판도 거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문화유적과 볼거리 등 관광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반면 우리 나라는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으로 곳곳에 무료화장실이 있고 영어안내책자가 있고 온 국민이 영어배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문화국민이 되자고 하며 교통질서 대중질서 들을 외치는 것에 비해 내가 본 유럽의 교통문화의식은 그리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도 너무 반성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상사 그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나타낸다면 외국인들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

(국회사무처 속기1과)

기록문화의 현실과 기록관리체제구축 -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조영삼

I. 머리말

기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가 아니다. 사람은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그 존재를 확인해왔고, 현재의 모든 생산력 발전은 결국 기록의 결과이다. 이렇듯 기록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 기록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정책에 관련된 실무회의는 물론이고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회의조차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었다. 대통령 관련기록의 경우에도 재가문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기록 경시의 풍조는 국민을 위하여, 행정담당자를 위하여, 나아가 우리 후손을 위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 자체를 앗아가 버렸다.

이러한 기록관리의식의 상실은 기록관리기관의 비체계성, 기록관리기관의 권한 미비,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 보존연한규정의 불합리성과 무차별 폐기 관행의 만연이라는 기록관리의 후진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훌륭한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기록에 대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관(史觀)과 사고(史庫)의 존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조선시대 임금은 부인과 후궁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사관을 입시(入侍)하게 했다. 화성을 건립하면서 참여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급여까지 그리고 소모된 벽돌 수까지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남겨 후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록문화의 전통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이 등록, 분류, 편철되어 관리된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기록물관리법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지지부진하고, 초기의 개혁적 법안의 내용 일부가 '개악'되는 상황이다(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공공기록물 등록 시행시기를 2001년 1월1일에서 2004년으로 연기한다는 것과 회의록작성의 의무조항을 '회의의 발언내용'에서 '회의의 발언 요지'로 변경한 것이다. <동아일보>2000년 11월 30일자 참조).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는 연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록문화의 천박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기록관리의 새로운 문화 형성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기록문화운동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기록문화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한편 기록관리체계 구축의 문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상황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논의하는 과정부터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법률은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를 전반적으로 조율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약하게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법령에 규정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체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기록문화 현실

비록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록문화의 현실은 어둡다. 가장 큰 문제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광범하게 확산되지 못한 것에 있다. 기록관리를 새로운 일을 하나 만드는 귀찮은 것으로 이해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일선 공무원들마저도 왜 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록관리는 이미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록 정보 혹은 지식정보를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발전 추진력을 가지고 있

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참고적 가치 외에 법률 증빙적인 가치가 있으며 무엇보다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기록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해 낭패를 본 일이 허다하게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본과의 어업협상을 벌이면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넘겨버린 것이나, IMF환란을 겪은 후 경제정책 입안·결정 추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환란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수 없는 일들은 위의 가치를 갖는 기록을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관리해 왔는가를 확인해준다. 따라서 기록물을 생산하고 남긴다는 인식과 이해의 확장은 기록관리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이 너무 미약하다. 지방의 자료관을 비롯한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등의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일할 기록물관리전문요원(archivist; 이하 아키비스트)의 배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도 연유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각 기관에서 뚜렷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으로는 국회가 유일하게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료관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의 기관에서만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관이 관련 공공기관 전체를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국가적 사업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기관·단체에서 앞장서야 올바른 기록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대학·병원·시민단체·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정경유착이 극단적인 곳에서는 기업이 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기업의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만약 기업에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져 기업운영이 투명했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학이다. 지금까지 서울대, 경북대, 홍익대가 기록관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등 많은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NGO)의 경우 '참여연대'가 기록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족하지만 공간을 마련해서 영구보존문서를 이관하기 시작했고,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또 '민주화운동자료관'이 설립되어 그동안 민주화 운동 도정에서 생산되었던 많은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 몇몇 시민운동단체들이 자료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록과학(또는 기록학이나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기록과학이라는 것이 구미의 경험을 습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적 기록과학의 학문적 성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키비스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학문적 차원의 '기록과학'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학문적 성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록과학과 관련한 유관 학문은 역사학·문헌정보학·행정학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런 학문적 영역의 연구자들이 단결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기록과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만약 학문적 성과 없이 밥그릇싸움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록관리의 미래는 어둡고 참담하다.

한편, 기록관리체계 확립의 관건은 유능한 아키비스트의 확보에 있다. 뭐라 해도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대학이 십여 곳이 있지만 아키비스트가 배출되는 것은 2~3년 뒤에나 가능하고 그 숫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 인력배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늦춰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현실의 상황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률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람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문화되어 버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록과학을 학습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또 무작정 기록관리학 전공자 배출을 기

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단기간에 최소의 경비로 아키비스트를 양성하여 배치한다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는 유관분야의 연구자 집단을 역동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자격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대책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기록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정부기록보존소'이다. 그런데 이 기관은 중앙의 1급기관이 아닌 지방의 2급기관이다. 심지어 정부기록보존소장이 행정자치부의 중앙간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낮은 위상을 유지한다면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문서를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내는 문제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국가기록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한편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어쩌면 이 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은 장단기적으로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주의적 성향, 즉 기록물의 관리를 국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되어야 하고, 기록관리전문가 등의 학자와 민간인들이 참여하여 국가기록물 관리를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해낼 수 있다.

Ⅲ. 기록관리체계구축과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지금까지 기록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의 위상과 역할, 기록물관리업무의 표준화 정도, 기록 관리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등과 관련하여 집중형과 분산형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기록의 양이 점차 방대해지고, 사(私)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기록정보에 관한 대중의 욕구가 다대해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중형의 기록관리체계가 요구된다. 또 갈수록 전산기술이 발달하여 새로운 정보시대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집중형은 기록관리 자체를 획일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또 점차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대중의 욕구에도 부응할 수 없다. 특히 매개 지방자치단체나 특수기관들의 개성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분산형의 관리체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집중 관리 분산보존'의 기록관리체계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집중적인 관리와 보존의 분산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기록문화의 선진국들은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들의 위상이 낮지 않다. 주로 정부조직에서 적어도 장관급의 기관이거나 행정기구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주지하듯이 정부부처의 2급기관이 기록관리체계 전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격상시키면 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현재의 조건에서는 행사부산하의 '청'수준이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록물관리법과 시행령 등에 표현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정리 하면서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그 전망

기록물관리법령에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두게 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정부기록보존소에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정책, 전문관리기관간의 협력,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 26조3항2호와 3호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해 놓았고,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령 42조와 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된 위원회라면 사실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위원회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하고 했지만 이것은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다. 물론 법률 자체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사기관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역사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정책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위원회를 정부기록보존소에 둔다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주지하듯이 정부기록보존소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2급기관이다. 이렇듯 위상이 미약한 상태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가 의문시되는데, 그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자칫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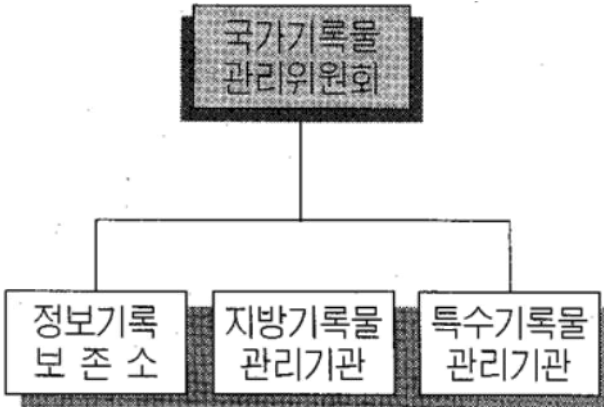
셋째,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2.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그 전망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기구로서의 위상을 검토해야 한다. 일단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처럼 정부조직 산하의 행정부처의 하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상설위원회'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하는 기구이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있고, 상설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다.

자문회의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된다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기록관리의 영역이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참여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민적 결합이 강한 분야이므로 그러한 구조적 토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관리체제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행정부처와 기록관리사항을 논의할 때 기구의 위상이 미약하여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직속이 되어 동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으로는 사실 행정기록도 제대로 관리해낼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그 위상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그래서 위원회의 장이 장관급이 되는 대통령 직속의 위치가 된다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도 격상될 것이다.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가 건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된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비상임위원, 사무처 등의 구성을 가져야 한다.

① 위원장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이때 위원장은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시민적 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위원

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무처장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장이 상임위원이 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좋은 모양이 될 것이다. 비상임위원은 기록관리나 관련학계를 비롯한 민간인 3~4명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위원은 총 6~7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③ 기록관리정책자문위원회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장에게 기록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자문위원은 기록관리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장 정신문화연구원장과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또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④ 사무처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업무를 실행하는 부처이다. 사무처에는 여러 부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기획과·정책과·기관지원과·인력개발과 등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역할

위와 같이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서 지적했듯이 비록 기록관리의 후발국가이지만 제대로 된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한다면 '후발성의 잇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유의해서 생각할 문제는 행정부의 기로뿐만이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특수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통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초창기에는 훈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아키비스트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각 부서 구성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나열하면 ①기획과는 장기 계획 및 사업프로그램의 수립, 예산 준비의 심의·실행 등의 업무를 실행하고 ②정책과는 기록관리관련 제법률·규정의 제·개정, 기록관리표준시스템의 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③기관지원과는 공공기록관리기관의 운영 지도, 기록관리기관 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마지막으로 ④인력개발과는 아키비스트 양성 및 재교육 지원의 업무를 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각 부서에 알맞게 배치되면 될 것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사무처 각 부서의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부서	부서
국가기록물 관리위원회 사무처	기획과	장기계획 및 사업프로그램의 수립, 예산 준비의 심의.실행
	정책과	기록관리 관련 제법률과 규정의 제.개정 기록관 리표준시스템의 제정
	기관지원과	공공기록관리기관의 운영 지도 기록관리기관 설 립 지원
	정책과	아키비스트 양성 및 재교육 지원

IV 맺음말(남는 문제)

지금까지 우리의 기록문화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록관리체제의 구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기록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은 기록문화의 확산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문제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기록을 하는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기록하자는 것에 국한하여 이해하면 안된다. 기록물을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상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여 집중제와 분산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인 적용하는 문제인데 현재의 흐름은 '집중관리 분산보존'임을 확인하였다. 또 집중관리 분산보존의 문제를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리하고자 했다.

먼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가 되어야하고, 국가기록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즉, 지금의 기록관리법률의 내용으로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록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기록관리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실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악'되는 현실을 보면 상황은 더욱 어렵다.

한편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현안은 '전자정부의구현

및 운영을위한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의 제정 움직임이다.<전자신문>2001년 1월 5일자 참조) 행정자치부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률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자정부구현 운영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전자정부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모두 7장51조(부칙포함)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의원발의안 중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추진단'을 별도로 두자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국가기록물관리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추진은 기록물관리의 전자적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단순한 기록물관리가 아닌 '지식정보의 관리'의 방향으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가 '국가지식정보위원회'혹은 '국가지식정보관리개혁위원회'같은 것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기록물관리의 체제개혁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는 의회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와 대국민 정보공개 및 헌정자료의 수집,전시와 국회사 편찬 그리고 헌정기념관 운영을 통해 열린국회를 선도하는 국회기록물 관리의 중추기관이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2000.1.1신설된 기록물 전문관리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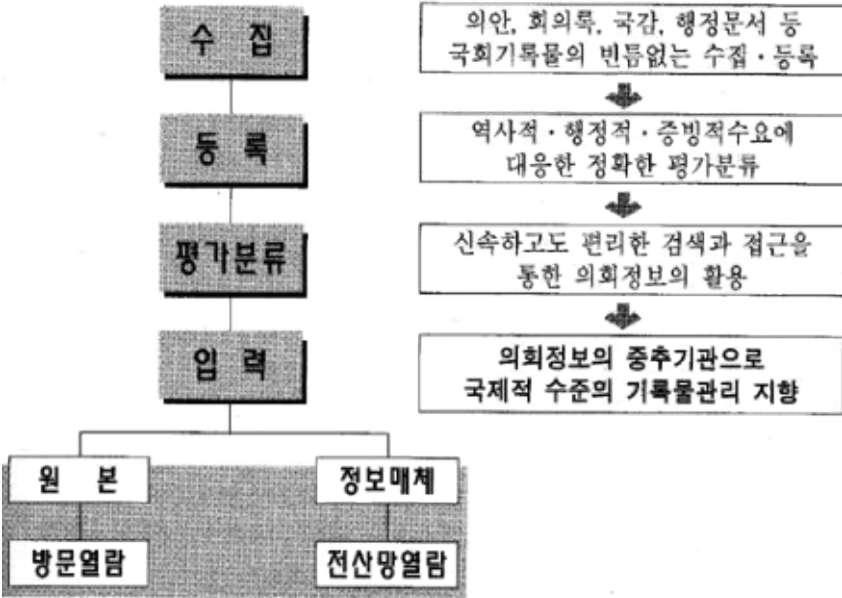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에서 생산,접수된 국회관련 기록물(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일반문서, 국정감사자료, 국회관련영상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민이나 기록물업무관련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역사적, 행정적, 증빙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분류와 보존체계를 구축하여 중요한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열람서비스를 통해 국회의 활동결과, 기타 관련자료를 국민이나 관계공무원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열린국회 구현과 국회기록유산의 보존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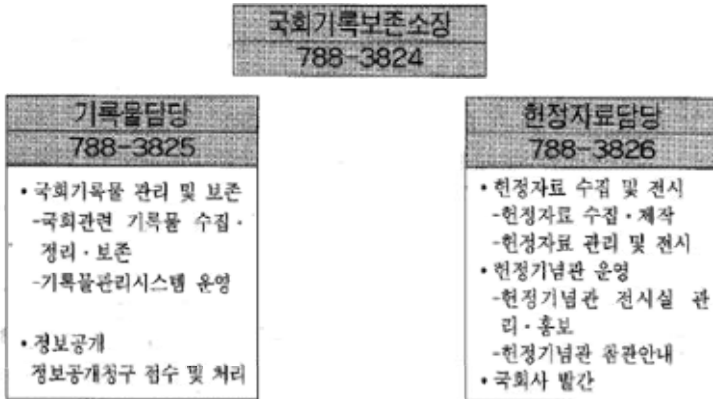
또한, 국회기록보존소가 운영하고 있는 헌정기념관은 제헌국회부터 제 15대 국회까지 대한민국국회가 걸어온 길을 볼 수 있는 대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안심의 등 실제적인 의정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의정체험관과 각종 의회관련자료전시실, 제헌국회 개원식 디오라마 등 누구나

흥미 있게 국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관을 권한다.

□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체계와 미래상 □



□ 국회기록보존소의 조직과 기능 □



왕조시대의 기록물 보존관리

유순태

역사는 축적된 기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를 기록물의 보존수준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자의 발명도 따지고 보면 기록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기록은 인류문화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기록물은 문자의 발명 또는 도입과 더불어 만들어진다. 우리 나라에 한자가 보급된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다.

우리 민족은 기록물의 생산, 축적, 전승에 있어 세계 어떤 민족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없는 민족이다. 지리적 여건때문에 역사상 수없는 외침으로 인해 수많은 기록물들이 소실, 훼손되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소실 또는 훼손된 자료를 복원함으로써 단절없는 기록물 전승에 진력해 왔다. 이러한 기록정신은 조선왕조시대 때에는 '사고제도(史庫制度)'는 우리 속기사들의 집필을 가능케 했던 조선시대의 '사관제도(史官制度)'는 우리 속기사들이 늘상 긍지로 여기고 있고, 또 그들의 후예됨을 자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다음은 양태진 편 <기록보존학개론> 책자에서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삼국시대의 기록물 보존관리

○고구려

삼국 중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갖춘 국가는 고구려다. 고구려는 소수림 왕 2년(372)에 중국 전진의 영향을 받아 태학의 설립을 보았다. 태학에는 태학박사가 있어 귀족의 자제들에게 오경, 삼사, 천문, 지리, 의학, 법률 등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적 기풍은 기록물의 생산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역대 제왕들로 하여금 역사편찬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즉, 역사편찬사업을 통해 왕권의 강화와 정통성 확립 및 국위선양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 100권의 <유기>와 5권의 <신집>을 발간하였다.

고구려는 태학과 국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국내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된 전적(典籍)까지도 여기에 소장케 하고 이들 기록물들을 관리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자림> <옥편> <자통> <손성> <진양춘추> <병서> 등 무술관계류의 기록물들이 그것이다.

○백제

백제에서는 근구수왕 이후로 경·사류의 기록물들이 널리 유포되었다.

근초고왕 29년(374)에는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케 함으로써 <백제서기>가 편술되었으나 현존물은 없다. 이밖에 일본서기에 <백제기> <백제본기> <백제신찬> 등의 역사서명이 보임으로써 백제에 적지 않은 역사서적과 참고자료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백제는 중국의 남조인 송, 제, 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상당량의 서적이 유입,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백제는 <책암>이라는 장서보관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록물 보존에 진력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신라

삼국중 가장 뒤늦게 한자가 통용된 나라가 신라다. 신라는 내물왕 때에 유학이 발흥하기 시작하였고, 법흥왕 15년(528)에 불교가 공인되면서 불경이 유포되었다. 진흥왕 6년(545)에는 여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는데 이 역사서의 실물은 현존하지 않고 진흥왕순수비의 비문을 통해 그 잔영을 엿볼 수 있다.

신라는 <국학>을 세우고 이곳을 유학의 전당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서적, 불서 및 기타 기록물을 이곳에 소장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신라와 함께 남북조시대를 연 발해는 문적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기록물의 편찬과 보관기능을 수행해 왔다. 문적원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리우게 한 중추적인 기구로서 당시 외교를 담당했던 사신사, 교육을 담당했던 위자감, 감찰을 담당했던 중정대와 함께 국력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후삼국시대인 진봉의 궁예도 18년간의 짧은 통치기간에 불과하지만 금서성이라는 기관을 두고 기록물을 생산, 보존, 보급해 왔다.

고려시대의 기록물 보존관리

고려 태조 왕건은 종래의 교학이나 사상 및 민간신앙의 유지발전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으나 왕권확립의 문제로 인해 특별한 도서육성책은 찾아볼 수 없다. 6대 성종때에 왕권이 확립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제가 새로운 체제로 구축된 8대 현종때에 이르러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성종은 16년간 재위하면서 국자감·비서성의 설립을 비롯하여 기록물을 비치할 서고를 설치하는 등 문교진흥정책에 진력하였다. 그는 즉위 14년(995) 관제와 직명을 전면적으로 개정, 승문관을 홍문관으로 하고 내서성을 비서성으로 개편 확대하였고, 7사 이외에 비서성, 국자감, 전중성, 소부감, 군기감, 사천감, 대의감을 설치하였다.

성종은 또 서경에 수서원을 설치하고 사적을 초서하여 이 곳에 유교서적 및 판본의 소장뿐만 아니라 열람, 수집, 보관, 정리, 이용, 교환, 담사를 하게 하고, 학술연구 조성기관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왕립문헌보존처인 비서성과 수서원에는 중국사서와 함께 신라 이래의 동방서적이 소장되어 있었다.

문종 초년경에는 비각이라는 서고가 왕실 주변에 건립되어 문교발전의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비각은 숙종 이전 명칭이며, 예종때에 이르러 삼각이라 일컫는 청연각·보문각·천장각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숙종 시대에는 궁중서고인 문덕전뿐 아니라 중광정·장령전, 연경전 같은 왕실 주변의 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광전은 왕부의 하나로 여기에 다수의 서적을 소장하던 곳으로 이 장서처는 인종 16년에 안강전으로 개칭되었다.

장령전은 숙종 이래의 장서처로서 서적의 편교도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때로는 불사, 열무, 사신의 접견 등도 이곳에서 거행했다. 장령전은 이자겸의 난으로 소실되고 인종 16년에 새로운 궁궐이 준공된 후 천령전이라 개명하였다.

연영전은 숙종때의 대표적인 기록보존처였으나 이자겸의 난으로 역시 소실됐다가 인종 16년 신축시 집현전이라 개칭되었다.

예종은 즉위 원년(1106)에 해동비록이라는 지리관계 서적을 편찬케 하였고, 12년(1117)에는 천장각이라는 서고도 궁중에 두어 귀중한 조서·어필·서화 등을 보관·열람케 하였는데 이 천장각은 송제를 모방하여 궁중에 둔 기록보존처였다. 뿐만 아니라 궐내에 청연각을 설치하여 사부서적을 소장하였고, 그 외에 궁중에 보문각·임천각이라는 장서처를 두고 수만권의 장서를 소장하였다. 청연각은 원래 예종 11년(1116)에 경연을 위하여 설치된 곳이고, 보문각은 청연각이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학사의 출입이 어려워 세운 장서처로 청연각이 경연처였다면 보문각은 학사들의 회강지처로서 기능이 확대되어 대표적인 왕실서고로 발전하였다. 이 보문각은 충렬왕 원년에 보문서로 개칭되었다가 같은 해에 동문원에 병합되었고, 충숙왕 원년(1314)에 다시 보문각으로 개칭되었다.

임천각은 인종때 궁중에 있던 장서각으로 이곳에 소장되어 있던 수만권의 장서중 삼국시대 이래의 문적과 당·송의 귀중한 서적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장서 또한 이자겸의 난과 탁준경의 난으로 소실된 것으로 추측된다.

인종은 김부식에게 <삼국사기>를 편찬 간행토록 하는 한편 식목도감을 두어 학제를 형성토록 하고, 국자감을 보강하고 향학을 세워 인재를 육성하였다. 국자감은 성종때 중국의 제도를 본따 창설한 교육기관으로 태조이래 운영해 오던 경학을 확충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이상과 같은 장서처외에 어서국 사루, 문첩소, 서적소, 서적포와 주자인소의 서적원 등을 설치하여 수많은 서적을 소장하였다.

이 중 문첩소는 보문각의 부설기관으로 그 기능은 분명치 않으나 국가 기록문서만을 수집보관하던 전형적인 문서기관으로 보인다.

서적소는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소실되어 보문각의 기능이 폐지되었을 때 임시로 서적을 이장하고 경사를 강독케 하였던 곳으로 보문각의 임시청사라 할 수 있다.

서적포는 숙종 26년 국자감 부설로 설치된 장서처로서 비서성에서 이관된 판본 중 훼손된 것을 옮겨 모인(摹印)케 하는 한편 국자감의 교육에 필요한 서적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둔 것이다. 이 서적포는 고려시대에

있어 교재출판을 겸한 기능을 겸한 곳이다.

이상과 같은 왕실 중심의 기록물 보존처 외에 전국에 산재한 사찰문고 또한 경서 중심이긴 하지만 기록물 보존처로 한몫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가나 개인의 현세에 있어서의 행복을 좌우하는 현세이익이 종교로 생각하여 태조 이래로 국가나 왕실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하여 사찰이 건립 또는 보존확충되었기 때문에 대찰은 대부분은 국찰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장서의 개관도 국비로 이루어졌고, 장경각이나 경관각은 물론 그 내용인 경관이나 경전도 국가소유였다. 고려대장경의 조판과 보관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조선왕조시대의 기록물 보존관리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4대 기록보존처는 집현전·홍문관·규장각·성균관이다. 이들 국가기관들은 모두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집현전

집현전은 고금의 경적을 비치하고 경사를 강독케 하기 위해 궁중에 설치한 관청으로 일종의 학문연구기관이었다. 고려시대에 이와 같은 제도로서 보문각·수문전·집현전이 있었는데 세종 2년 종래의 제도상으로는 명칭만 있었던 보문각과 수문전을 없애고 집현전만 궁중에 두어 학문의 관서로 한 것이다. 이 집현전의 설치목적은 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를 이룩하는 데 있어 학문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중추적 기관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종 때에 집현전은 경연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출범했으나 세종의 집현전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요청에 의해 '사대문서작성' '가성균관직' '복서' '교정' '사관' '사신' '지제교' '고제연구' '경찬사업' '풍수학관' '종학교관' 등의 순으로 확대되었다.

집현전의 주요임무는 경적을 간행·편집하고, 장서를 보관하는 일이었다. 이곳에서는 경연에서의 강학 및 연구를 위하여 서적을 편찬 간행하는 한편 서적의 구입 혹은 납본을 받아 세종 11년(1492)에 새로 건축된 집현전 내의 규장각에 소장하였다. 특히 세종은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함

과 아울러 서적을 납본한 자에게는 원하는 바에 따라 포백을 주고 매우 중요한 서적을 납본하는 자에게는 관작의 상까지 내려 집현전의 장서수는 만여권에 달했다.

집현전의 장서는 사분 분류법에 의해 정리하였고, 그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사부 표기법에 따라 圖書篋(도서전: 레이블)의 색깔을 달리하여 정부에 홍색전, 사부에 청색전, 자부에 황색전, 집부에 백색전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종 11년(1429)에는 집현전에서 경선소장의 책에 표기가 없어서는 아니되나 '경선' 두 자의 인을 만들어 매권의 권두에 표시하고, 또 '내장' 두 자의 인을 만들어 도서가 내사되는 동시에 착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집현전이 세조 2년에 폐쇄됨에 따라 집현전의 장서는 예문관 소관으로 되었다.

○홍문관

홍문관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왕실의 서적을 관리하며 문서와 서한을 맡아 처리하고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관어로, 옥당·옥서 또는 영관 등의 별칭이 있었다.

홍문관은 원래 고려 성종 14년 승문관을 고쳐서 홍문관이라 칭하고 학식이 뛰어난 문신을 택하여 학사로 하고 도서의 출납을 맡아 보는 곳이었다.

조선 세조는 집현전을 폐하고 거기에 소장돼 있던 장서를 모두 예문관에 이관시켰는데 예문관에 소장됐던 장서는 성종 9년 당시 장서기관으로 유명무실했던 홍문관에 보내졌다.

홍문관은 장서수집은 대체로 외국과의 무역에 의한 구입, 사본제작, 납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서적은 호조에 구입 요청을 해서 중국으로 부터 구입, 납본토록 했다. 그리고 사본은 왕의 하교에 의해서, 혹은 홍문관에서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제작토록 하였다.

그리고 교서관을 비롯한 기타 경사에서 인출하는 모든 서적은 반드시 홍문관에 1부씩 납본토록 했다.

홍문관에 소장된 장서는 수만종에 달하는데 그 대부분이 고려시대부터 전하여 온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 25년(1592) 전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서가 소실되었고, 전란 후 홍문관의 장서는 인조 이후 각처에 남아있던 서적과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조 때는 규장각의 건립과 함께 홍문관 장서의 일부를 규장각으로 옮겼고 홍문관에서도 계속 도서를 수집하였다.

홍문관에 소장되는 도서는 등영각이라는 장서각에 소장하였으며, 서책의 맨 첫장에 '홍문관(弘文館)'이란 주인을 찍었다.

○규장각

규장각은 조선 선조 때에 동지중추부사 양성지의 건의에서 비롯되었다.

양성지는 "군주의 어필, 시문을 감진(勘進)하여 인지당 동별실에 봉안하고 명칭을 규장각이라 하며 서적을 보관하는 내각을 설치하고 명칭을 비서각이라 할 것"을 세조에게 건의하였으나 윤택받지 못했다. 하지만 숙종 25년(1694)에 이르러 종정사내에 소각이 별건되고 열성어제·어서가 봉안되었으며, 숙종이 친필로 '규장각(奎章閣)'의 편책을 써붙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규장각의 시초라 볼 수 있다.

정조는 즉위 원년에 창덕궁 북원에다 일각을 건립하고 열조의 어제·어서를 봉안하고 각의 이름을 처음 어제각이라 하였다가 규장각이라 개칭하였다.

정조의 규장각 설립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정조의 어제·어필을 봉안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문화정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 감당에 있었다.

규장각은 내각과 외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각에는 금문원·봉모당·이안각(일명 비향각)·열고관·개유와·서고 등의 부대시설이 있었고, 외각에 교서관과 강도외각이 있었다.

금문원은 내각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어제·어필·선원보첩 및 내부의 서적에 관한 사무와 일성록 및 내각일력의 편찬을 맡아보았다. 또한 서적의 수집·정리·출납과 어제·어필 등의 봉안은 반드시 금문원을 거쳐서 하도록 하였다.

봉모당은 열조의 어제·어필·어서·고명·유고·밀교 및 선보, 상지 등을 봉안하였던 곳으로, 그 내용물은 주로 영조의 것들이다. 이안각은 본래 서향원이라 하였으며, 주로 어진·어제·어필 등을 봉안하였던 곳이며, 중국도서를 주로 소장하였던 열고관 역시 규장각의 부속서고로서 '세화본도적

(歲華本圖籍)'이라 하여 규장각 서목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개유와는 열고관과 마찬가지로 중국도서를 소장하였던 곳으로 이곳은 6·25동란 때 소실되었다.

서고는 동본도서 즉, 조선본을 소장하던 곳이며, 교서관은 예각·내서성·비서성 또는 전교서라 하여 경전의 인행·향축인전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어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 교서관은 세종조에는 전교서라 하였고, 성종조에는 다시 교서관이라 불렀다.

강도외각(규장외각)은 강화도에 있던 것으로 이곳은 지형적으로 요새지역서 전란시 주요 피난처가 되었으며,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8년(1595)에 중요한 경적이 최초로 이안 또는 봉안되었다.

즉, 선조 25년 임진왜란의 화를 모면한 왕조실록 전주사고본은 난을 피하여 해주·묘향산 등지로 전전하다가 선조 28년 강화도 마니산 남쪽 홍왕사의 궁궐 안에 사고를 짓고 그 곳으로 이안하였다가 정족산성 내에 사고를 다시 짓고 실록을 이 곳에 옮겨 한말까지 계속 보관케 하였다.

효종은 강화도 사고 옆에 별고를 건립하고 여기에 국왕의 교명·책보·열조의 어제·어필 및 고금의 서적도서등을 봉안하였으며 정조는 즉위 5년에 외규장각의 제를 정하고 강화유수 서호수에게 명하여 외규장각을 별건토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으로서 장서의 수집, 정리 보존 관리처로 사용되었고, 정조는 즉위 원년에 고금도서집성 5,022권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구 홍문관과 강화행궁의 장서였던 명연소사의 제본을 모아 규장각의 장서로 함으로써 정조 5년까지 수집된 도서수는 무려 3만여 권에 달했다 한다.

○성균관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국학·태학·국자감·반궁·현관 등의 별칭이 사용되었다. 이 성균관은 태조 7년에 건립되었고, 여기에 부설된 장서각인 존경각에는 교수와 관원 그리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적을 모아 소장하였다. 성종 6년(1475) 성균관에 세워졌던 존경각은 중종 9년(1514)의 화재와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어 소장되었던 서적의 내용과 양은 알 수 없으나 조정에서는 서적을 간행할 때마다 성균관에서

하사하였고, 특별히 이조에 명하여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하여 소장케 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의 사고(事故)

조선왕조는 역대 왕조가 전란과 병화로 귀중한 사료들을 올바로 보존하지 못한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고제도'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국초에 내사고로서 서울에 춘추관을, 외사고(外史庫)는 충주·성주·전주의 세곳에 각각 사고를 설치하였다.

춘추관은 시정의 기록을 맡은 관어로서 서기 503년 국권이 상실할 때까지 내사고의 역할을 겸했다.

조선왕조 최초의 외사고(外史庫)는 충주사고이다. 성주·전주의 양 사고가 세종 21년에 창설을 명한 기록 등으로 보아 이 충주사고는 해인사에 있던 고려시대의 것을 그대로 소장한 듯 하다.

김길손의 전주실록각기를 기초로 국초의 사고, 즉 충주·성주·전주의 각 사고에 왕조실록을 나누어 보관한 해는 세종 27년(1445)이다. 그때 춘추관에 태조실록 15권, 공정왕실록 6권, 태종실록 36권 등 각 4부를 작성, 1부는 춘추관의 실록각에 소장하고, 다른 3부는 충주·성주·전주의 삼외사고(三外史庫)에 나누어 소장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시대의 주요 외사고는 다음과 같다.

○충주사고

충주사고는 조선왕조시대 최초의 외사고이다.

세종 13년(1431) 4월에 태조실록·공정실록·태종실록 등 3대실록을 이 사고에 봉안하고 성종 8년 가을에 세조·예종실록을 성주·전주사고와 함께 이 충주사고에도 봉안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실록과 함께 소실되고 말았다.

○성주사고

성주사고는 세종 21년(1439)에 개설되었다. 이 사고는 중종조의 실화와 선조조의 병화로 소실되었다. 그 후에도 역대실록을 계속 이곳에 봉안했으나 선조조의 임진왜란시 병화를 만나 실록과 장각은 없어지고 재건을 보지 못했다.

○전주사고

전주사고는 세종 27년에 개설되었고, 이 사고만이 임진왜란시 유일하게 난을 피하여 온존하게 보존되었다.

○마니산사고

마니산사고는 뒤에 정족산사고에 옮긴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39년 경적 봉안의 적지로서 효종조의 어제·어필·교명·책보·고금서적·도서가 봉안되었다. 이 사고는 최근세까지 존속되다가 1919년에 파괴되어 현재는 초석만이 남아있다.

○묘향산사고·오대산사고·태백산사고

묘향산사고·오대산사고·태백산사고는 모두 임진왜란 후 선조 39년에 신설되었고, 이중 특히 오대산사고는 임진왜란 직후 건축물의 특색을 지닌 건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적장산사고

무주의 적장산사고는 광해군 6년에 창건된 것으로 인조 때에 묘향산사고가 안전한 곳이 못된다 하여 묘향산사고의 장서를 이곳에 이전하고, 묘향산사고는 폐지되었다.

(속기문화연구소 대표)

비와 바람 그리고 비

아침에 떠난 바람이 지친 채 돌아와
비처럼 내리며 문을 두드린다,
어둠 깊숙히 붙어 켜지고 등불 아래 모인다,

네!

멀수록 체온은 뜨겁게 부딪힌다,
헤어진 지 수년만에 돌아와 눕는 바람
다시 또 채비하며 길을 떠난다,

비가 내린다,

너와 나 공간의 구멍에 범람하는 바람
귀에서 네 목소리가 물이 되어 흐른다,

김영서 (달서구의회, 협회의원)

속기보다 더 사랑하는 속기사들

윤 태 원

서버가 다운되었다. 아무래도 해킹을 당하지 않았나 싶었다. 한참 자고 있을 직원을 호출하고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에 빗소리도 잠겨버렸는지 고요하기만 했다.

다른 지역에는 눈이 온다고 했는데 이곳, 아니 나 있는 곳만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년이였다. 아니 정확하게 9년 6개월이였다. 몇몇 분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주로 친척들이지만) 10년 가까이 해오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요즘같이 불황시대에 왜 그만두느냐는 질책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나만의 삶인데 하고 싶은 것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내가 30여년 살면서 나 스스로 인생을 결정했던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속기를 시작한 것이었고 그 두 번째는 속기업무를 그만둔 것이었다. 결국 속기만큼은 나 스스로 결정하여 내 인생을 설계하게 된 것이다.

처음 속기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만큼은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 한 마디가 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기공부를 시작했다. 지금은 속기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일을 하면서 속기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속기공부만 하기로 했었다. 작은 지방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도시에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자취생활을 해가면서 속기공부만 했었다. 그렇게 시작한 속기가 결국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의회 속기사로서 10여년 근무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다 2000년도에 지방의회를 그만두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내 일생을 결정한 것이었으며, 공교롭게도 속기를 시

작한 것과 끝을 낸 것이 유일하게 내 고집대로 내 삶을 결정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만큼 속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속기를 그만두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속기업무만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지방의회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그만두었을 뿐 속기에 대한 사랑과 속기사들과의 우정은 아직 변함이 없다.

내겐 10년 된 속기 고객이 있다. 1년에 한두번 정도 나를 찾지만 10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 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분이 요청하면 직접 가서 속기를 해줄 것이다.

어저께는 교육청에서 녹취 의뢰건이 들어왔었다. 녹취사무실보다 더 믿음이 가는 속기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방의회 근무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금액에 관계없이 의뢰하고 싶어했다. 여러 가지를 논한 뒤에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 이제 나도 속기사로써 중견쯤 되지 않았나 싶다. 후배들을 위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하기보다 후배들에게 그 길을 터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부터 속기나 녹취건이 들어오면 내가 맡기는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후배에게 넘겨주고 대신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졌다. 이런 나의 행동에 대해 아내는 조금 빈정거렸다. 몇 시간 노력하면 수십만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고 하는 것이다.

작년에 속기선배님 요청으로 주총속기를 한 번 했었다. 그런데 선배님의 임무는 주총이라는 무대의 총감독이셨다. 나로서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단순히 속기 하나만을 상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속기를 발판으로 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치에 서 계셨다. 선배님의 모습이 엄청 크게 보였었다. 물론 그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주총을 진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그 회사의 돌아가는 상황과 주총회의에 대한 완벽한 지식, 주식이나 사회적 동향 등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했다.

선배님은 전문가셨다. 녹취 한 건을 서로 하려고 몇만 원에 속기사의 자존심을 몽개버리는 그런 어설픈 속기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속기를 사랑하면서 속기의 질과 영역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고 계셨던 것이다.

속기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단순히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이나 녹음테이프의 녹취록 작성만이 아니다."하는 것을 보여 주셨다.

현재 우리나라 속기제도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속기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부 기관, 녹취사무실,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이다. 배출되는 속기사수에 비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 속기에 대한 인식이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따지기보다 "속기는 회의 있는 곳에만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깬다면 한다. 좀더 넓게 다른 분야에서 속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분명 속기문화는 발전할 것이다.

자막방송 분야에 속기를 적용한 것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선배속기사와 속기의 영역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였는데 실행되지는 못했었다.

현대사회의 돈 버는 사업중에서 아기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번창한다. 하루 수십만명이 결혼하고 또 태어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한번 뿐인데 잘해 주어야지'하는 생각으로 금전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가 당연히 특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야에 속기를 접목하자는 안이었다.

결혼식에 관한 건데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두 사람에 관한 신문을 만들어 하객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 신문에는 두 사람이 만난 이야기에서부터 사진도 실고 또 양가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실는다. 그리고 이 신문에 당일 주례선생님의 주례사를 요약이나 짤림없이 말한 그대로 실어서 배포가 된다면? 훨씬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주례사를 제외하고는 사전제작이 가능하다. 신문은 주례사 들어갈 부분을 비워두고 결혼식장에서 속기사가 주례사를 속기한 다음 식이 끝나자마자 인쇄하여 하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식 즉석 인쇄시스템과 많은 장비가 소요될 것이다.

좀 황당한 이야기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현재의 속기영역을 훨씬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를 그만 두었다고 해서 속기를 떠난게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내 댄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진다.

얼마 전에 그토록 염원하던 속기사 동료가 장가를 갔다. 그 많은 날 중에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잡아서 비난도 많았지만 축하할 일이었다.

일도 바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할 겸 결혼식 당일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료가 그렇게 애착을 갖는 속기사로서 단순히 식장에만 나타난다면 얼마나 섭섭해할까하는 생각이 들길래 직원들에게는 늦게까지 일하라고 시켜놓고 가족도 떼버리고 몇몇 속기들과 함께 갔었다. 전날 친구들의 땀기풀이로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비록 5명이었지만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밤을 맘껏 축하해 주었다.

이렇듯 앞으로도 계속 속기사들과의 관계는 가질 것이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만사 제쳐두고 갈 것이다.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마음으로 대해 주는 속기사들이 많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이다. 이런 분들을 두고 어찌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속기사의 지위향상문제에 앞장 섰던 것도 이러한 이유였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속기업무를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속기를 사랑한 것보다, 내 지위를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속기사들이 좋아서였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분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속기업무는 그만두었지만 속기관련 일은 계속 할 것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 왔었고 모든 자료나 돌아가는 상황등, 또 그로 인해 인연 맺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속기사와 관련이 된다. 예전에는 내가 주가 되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어찌면 속기사들을 평가해야 하는 자리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러 의회회의록 작업을 하다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더러 있다. 이것이 과연 속기사가 한 것인가? 그래서 직접 그 속기사에게 물어본다. 그런데 다 행히도 그 당시에는 속기사가 없어서 타자수가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확실히 속기사가 만든 회의록과 타자수가 만든 회의록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아직도 회의록 작성에 미숙한 속기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그곳의 속기업무에 대해 듣게 되는데 놀랄 때가 있다. 너무 정보가 차단된 채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최고인줄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그곳의 다른 직원들은 속기사들에 대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속기사들에 대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류의 속기사들 대부분이 협회에 대해 무관심한 분들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로 인해 속기사에 대한 일반직은 더더질 것이다.

원래 잘하는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잘 못하는 부분들은 부각되기 쉽다.

어느 의회에서 회의장면을 편집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띄웠다.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의회의 속기사에게 회의록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고 물었다. 비디오에 나오는 음성과 회의록의 문자가 서로 틀린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띄웠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작업하면서 많은 우려를 했다. 의원들의 자질은 제쳐두고서라도 당장 속기사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에 오차가 많고 엉뚱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속기사들은 비난받게 될 것이고 그 속기사는 무능한 속기사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속기사는 일반적으로 해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시대는 당연히 능력없고 실력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저 내가 속기사임에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속기사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예의 그 속기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많은 칭찬을 받아왔다. 여러 의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이 부분이 확산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속기사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평가가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이땅에서 속기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꽃필지도 모르겠다.

최근들어 우리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직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기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장에 들어가 속기를 하고 그것을 번문하고 상급자에게 원고를 넘기는 것은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기능업무일 뿐이다. 속기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그로 인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업무, 그러한 것을 먼저 완벽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요즘은 속기사들을 만나면 몇 가지를 물어 본다. 회의록 인쇄에 대해 속기사가 직접 품의를 내느냐? 회의록 발간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담당하느냐?

놀라운 것은 의외로 이 업무에 대해서 속기사가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품의가 뭔지, 기안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속기사가 있었다. 물론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왜 한번도 하지 못했는가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자신의 영역 밖의 업무라고 했다.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규정하에서 얼마든지 속기사가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일련의 업무들을 떠안음으로써 자신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 질 것이고 의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속기사를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속기사들의 업무가 정착이 된다면 자연스럽고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좀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요즘 퀵서비스라는 직업이 생겨났다. 물건들을 빠르게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는 것인데 가끔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등산복같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등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만큼 해서는 남과 똑 같다"

그렇다. 남이 하는 만큼 해서는 그와 똑같은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어느 중앙공무원이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일개 기능직 공무원인 속기사는 그분들의 눈에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공무원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항변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아온 평가일지도 모른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들 눈에 속기사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속기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속기협회나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에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비록 지방의 몇몇 안되는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지만 속기사로서 충분한 자질과 덕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일본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많은 속기사들이 함께 동참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는 각오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 지방자치 10년, 지방자치는 10년을 주기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골라 새로운 정책이 입안될 것 같다. 그 물결에 우리 속기사 역시 휩쓸리지 않을까 싶다. 그때는 속기사가, 내가 사랑하는 속기사가 당당한 위치에서 아무도 질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윤컴시스템 대표, 협회 회원)

송파구 의회를 찾아서

장 미 경

무수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서 의회내에서 꼭 필요한 직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말겠다는 송파구의회 속기팀의 각오는 한길되는 얼음도 녹일 것만 같다.

송파구는 서울시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5km인 한강 이남에 위치하며 백제 초기 유적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적석총, 방이고분 등 문화재가 많아 유서 깊은 지역인 동시에 서울 동부지역의 교통과 사업, 유통의 중심지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러낸 저력 있는 지역이다.

전날 내린 눈과 추위로 땀 부는 겨울바람을 가르며 우리는 택시와 전철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1시간만에 송파구의회에 도착했다.

막 택시에서 내리니 조정숙 회원이 어서 오시라며 환한 웃음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었다. 송파구의회의 앞마당은 마치 얼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지만 의사국의 사무실 분위기는 무척 따뜻해 바깥의 추위를 모두 녹이고도 남을 것 같았다.

유용기 의사계장님께서 우리를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우리 속기인들에게도 협회와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에 감탄해 하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도 잊지 않으셨다. 유 계장님께서서는 협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며 협회 홍보와 속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송파구의회의 뛰어난 속기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우리는 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접견실로 자리를 옮겼고 송파구의회 의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 조금은 죄송스러웠고 의장님의 하사품(?)으로 우리는 맛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송파구의회 의사계에는 계장님 1명, 행정직 직원2명, 속기사4명으로 속기사의 구성비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속기사 4명은 개원멤버로 10년 가

까이 지내다보니 가족보다도 더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랑이 대단했고, 유일한 남자속기사인 유찬봉 회원은 여자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계장님이나 행정직 직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이동이 잦아서 헤어질 때마다 서운함과 아쉬움이 커서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조정숙 회원의 미소 섞인 말속에는 이미 정이 담백 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사국은 3개 계 전부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애로점은 없느냐고 묻자 모두들 웃으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들 얘기했다.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오히려 너무 조용하기만 해도 이상하다나?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지 전 직원들이 알게 되어 평소에도 쉬엄쉬엄 일을 하라는 격려(?)의 소리도 듣는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함박 웃음을 짓는 모습이 너무도 부러웠다.

송파구의회는 1991년4월15일 45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으며 당시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현재는 28명의 의원으로 초창기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회의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11명), 행정복지위원회(14명), 재정건설위원회(13명)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1991년 개원 이래 지금은 90회째의 회기를 맞고 있으며 회의는 연간 80일이고 정례회, 임시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례회는 35일간 하며 6월에 1차, 12월에 2차 회의가 열리고 1차 정례회의 때는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차 정례회의 때는 예산을 다룬다고 한다.

특히 송파구의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행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김성순

의원님께서 송파구청장으로 재직시 닦아 놓은 성과라는 직원들의 귀땀이 있었다.

의회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국회보다는 규모가 적어서인지 인원이 적어 회의록의 시작인 속기부터 마지막 책자로 나오기까지 모두 속기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여느 지방의회와 똑같았다.

속기 후 번문한 초벌원고는 인쇄소에 가게 되고 이후 3회의 교정을 거쳐 회의록을 완성한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번문한 원고를 타자원들이 타자로 친 후 인쇄소에 넘기고 인쇄소에서 1차 완성된 원고를 3회의 교정을 거쳐 회의록으로 완성되면서 이때 한자입력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의 도입으로 타자작업을 하는 시간을 벌어 회의가 끝나고 나면 3일 이내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임시회의록을 올린다고 한다.

국회처럼 완성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의정활동의 신속한 업무협조와 구정 소식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에 등록하며 이후 완성된 회의록이 나오면 최종판을 다시 등록한다고 한다.

이 회의록 사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무척 높은 편이며 무엇보다도 기자들과 의원들이 무척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인터넷서비스 이후로 의원들의 속기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 지고 있어 흐뭇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인터넷 등록 이전에는 120만부를 발간하던 회의록을 등록 시작 이후에는 60만부만 발간하게 되어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대의 회의록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구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한다.

4명의 속기사가 이 정도의 속도로 이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것에 취재하려간 우리 기자들은 모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으며, 동석한 행정직 직원인 마천 씨 또한 정말 놀라운 분들이라며 너무 일을 빨리 해서 자신이 힘들 지경이라고 칭찬 어린 불평(?)에 우리 모두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송파구의 속기사 4인방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신속하고 정확한 회

의록 작성을 위해 올해부터 CAS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재 마지막에 개인적인 새해의 소원을 물었을 때 컴퓨터속기를 빨리 배워 실무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아마도 속기사가 천직인 듯 싶다.

그동안 힘들었던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현재보다는 과거의 일들을 더 많이 떠올리는 듯 했다. 개원 초기에는 녹음기의 릴이 녹아내려 더 이상 녹음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일을 했다는 말에 모두들 아연해 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회의가 동시에 열려서 교대도 할 수 없었고 녹음기도 설새 없이 돌아가 기계도, 사람도 모두 다운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해에는 용역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의회의 규모도 줄어들고 속기사 없이는 회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아셨는지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일은 거의 없어 무적의 속기4인방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개원 초기에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속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때때로 속기사 없이 회의를 열어 버리는 상황도 자주 일어났다고 해 때때로 국정감사시 국회 속기사들도 겪는 일여서 공감이 갔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점이 속기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속기인들이면 누구나 느끼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속기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묵묵히 우리의 본분을 다해 오지 않았는가? 부족한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량 때문에 등, 어깨, 목, 팔 등이 아파오는 직업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서 의회 내의 꼭 필요한 직원으로 자리매김한 송파구의회 속기사들을 보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 꼭 의미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참, 송파구의회에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한 아리따운 여성 속기사 두 분이 나 계십니다. 이 글을 보시고 용기 있으신 미혼의 남성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무방하답니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협회 홍보부장)

< 송파구의 역사 >

송파구는 선사시대부터 주민이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수도가 있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충청도, 경상도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그 뒤 1963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시로 편입되었고 1988년1월1일 강동구에서 분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송파구의회 연혁

- 1949년7월4일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1950년 한국전쟁으로 중단
- 1991년3월26일 1990년12월31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부활

제1대 송파구의회(임기4년)

- 1991년3월26일 27개 선거구에서 44명 선출
- 1991년4월15일 제1대 구의회 개원
- 1995년6월30일 임기만료까지 정기회 4회, 임시회 33회 운영

제2대 송파구의회(임기3년)

- 1995년6월27일 27개 선거구에서 45명 선출
- 1995년7월12일 제2대 구의회 개원
- 1998년6월30일 임기만료까지 정기회 3회, 임시회 26회 운영

제3대 송파구의회(임기4년)

- 1998년6월4일 28개 선거구에서 28명 선출
- 1998년7월12일 제3대 구의회 개원, 현재 운영중
- 2002년6월30일 임기만료(예정)

烏賊魚序說

이 정 구

지금 한가롭게 저 멀리, 하늘과 사이좋게 맞닿은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징어를 말리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바다며, 어디서 난 오징어나구요?

헛! 말 걸지 마십시오.

지금 시커멓고 커다란 쉬파리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덩석 덩벼 들지 않고 변죽만 울리다가 베란다 난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다시 나타나 흉물스럽게 생긴 그대로 음흉하게 오징어 주위를 배회할 겁니다. 그러다 내가 감시의 눈초리를 잠시라도 다른 데로 돌리면 어느샌가 오징어 몸통이나 다리 어딘가에라도 붙어 있을 겁니다. 기척을 내지 않고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녀석은 대뜸 눈치를 채고 일정거리에 이르면 둔중한 움직임으로 여유있게 날아가버립니다. 아마 녀석에게는 매우 성능 좋은 레이더가 달려 있나 봅니다. 마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순양함처럼 말입니다. 철통같은 삼중 사중의 최첨단 요격망이 펼쳐져 있어서 어떤 미사일도 뚫고 들어와 명중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엄청난 비싼 조그만 배 말입니다. 어김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래 오징어 뒤쪽에 붙어 있던 녀석은 살금살금 걸어간 나의 사정거리 안으로 막 들어오려는 순간 또, 날아 도망갔습니다. 아직 녀석의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중이거나 오징어에 탐닉하여 황홀경에 빠져 들어 방심하기에는 너무 일렀나 봅니다. 하여간 이젠 됐습니다. 녀석은 한참 뒤에 아무 기척도 없이 다시 날아올 겁니다. 어쩌면 동료를 데리고 올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날아갔으니 되기는 된 셈입니다.

아, 바다에 대해 물어보셨지요.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쉬파리에 대해 물어보셨……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난 오징어나고 물어보셨었지요.

그야 물론 동해에서 난 거지요. 아니,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한심하다는 투로 저를 바라보시는군요. 오징어가 서해에서도 난다구요? 제가 깜빡하니까 아예 저한테 주파수를 맞추셨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실은 지금 제가 무지막지할 정도로 피곤하다보니 머리 회전이 평소와 틀리군요. 이 오징어는 제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낚시줄을 돌려가면 직접 잡은 겁니다. 이제야 얼굴이 펴지셨군요. 오후 4시에 배를 타고 출항을 해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 경에 부두에 닿았으니까 무려 16시간 30분 동안 꼬박 배를 탄 셈입니다. 사실 오징어잡이 배를 타보기는 처음이라 멀미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멀미의 "머"자 정도만 살짝 어루만졌을 뿐 구태여 쓰다듬다가 등판을 두드려 맞는 엉뚱한 짓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좁은 선실에 누웠는데 그때 조금 울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오징어를 잡아온 어부들도 놀라더군요. 전혀 멀미를 안한다고 날 보고 체질이라나 뭐라나…… 그렇다고 내가 남해에서 멀치 잡는 배를 타거나 충주호 유람선 안에서 일을 했다거나 영월 동강에서 나룻배를 저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작해야 한강 유람선 한번 타보고 춘천 신포리나 소양호로 낚시 갔을 때 이른바 명당자리를 기대하며 낚시배 몇번 타 본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주말에 드라이브 삼아 서너번 강화 석모도라는 섬갈지 않은 섬에 배에 차를 싣고 불과 십분도 안되는 거리를 건너간 적은 있습니다. 배 뒤쪽에서 하늘로 새우깡을 던져주면 신기할 정도로 거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먹는 갈매기떼를 보는 즐거움을 주는 그 섬에 말입니다.

제일 멀리 간 곳은 울릉도였습니다.

몇년 전 여름에 가족과 함께 목호에서 세몬가 네몬가, 참 그건 한강이고 무슨 '카'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였는데, 하여간 자동차도 꽤 많이 싣는 무척 커다란 캐속선을 타고 갔습니다. 모처럼의 배를 타고 하는 즐거운 여행에 우리 가족은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도 헛갈리는, 목훈가 동행가 하는 시내 분식집에서 산 김밥에 찢감자로 요기를 하고 음료수와 과자봉지를 들고 선실 의자에 정중하게 앉아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승무원은 선내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안에 좌석마다 산소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듯, 포장을 뜯고 들든 말든 자유인 비닐 봉지에 짠 이어폰을 나눠주듯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철근을 가득 실은 커다란 대형 트럭과 유조차까지도 싣고 다니는 배에서 멀미를 해 봤자 얼마나 심하게 하겠습니까! 평생동안 어금니를 여섯번 간다는 코끼리에게 주어지는 비스킷 한 쪽만큼은 하겠지요. 그런데 항구를 빠져 나가 속도를 내는 듯하자 그 커다란 쾌속선은 누가 쥐고 흔들기라도 한듯 앞뒤로 심하게 기우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톱니바퀴 위를 끊임없이 요동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까만 비닐 봉지를 나눠주자 타기 전에 김밥을 괜히 먹었나 하고 은근히 후회하던 아내는 급기야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약간 웃는 듯 마는 듯 손으로 화장실쪽을 가리키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아내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출항한 지 10분도 안됐을 때입니다. 한참 뒤 겨우 미소를 띠며 자리로 돌아온 아내의 손에는 까만 비닐 봉지가 몇개 들려 있었습니다. 미처 닦아내지 못한 물방울은 아내의 입 언저리에서 반짝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첫째는 빼고 데리고 온 둘째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는 녀석의 눈초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커다랗게 굴곡이 진 몇개의 톱니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릅니다. 쾌속선의 특성상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나까 오로지 선실창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바다는 온통 파도치는 푸르름 그 자체였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들은 동그란 창을 세차게 핥으며 흘러내렸습니다.

산산히 부서지는 바다의 활력있는 조각들과 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응어리들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비릿한 냄새도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가득 떠밀려온 다시마에서 풍겼던, 그런 비슷한 바다의 냄새가…… 바다, 그 속에서 아마 여기 빨래줄에 널려 있는 오징어들도 교미하고 산란하고 길다란 두 다리를 쪽 뺀어 먹이를 잡아 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벌거벗은 채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햇빛나기를 기다리는 쪽은 아마도 나겠지요. 오징어야 무슨 커다란 상관이 있겠습니까. 햇빛이 나든 말든. 진짜도 아닌 것한테 착각에 빠져 덩석 덩벼

들었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진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이겠지요. 애타게, 지금쯤은 그 바다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셋, 또 쉬파리가 나타났습니다.

야무져 보이는 검은 몸집으로 소리도 없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그놈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마치 아파치 헬기처럼 소리도 없이 나타나 실은 이게 아니라는 듯 그저 하릴없이 배회하는 척하면서 은근 슬쩍 오징어에게 접근해 가는 품이 쉬파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날렵하게 휘두르는 내 손바닥에 녀석이 심각한 위협을 느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볼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비록 녀석을 겨냥하고 한껏 휘두른 손바닥에 맞진 않았지만 토네이도처럼 주변에 회오리졌을 내 장력(掌力)에 놓은 혼쫓이 났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헬리콥터였다면 양력(揚力)에 심각한 이상을 겪 정상운항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추락했을지도 모르지요. 아까보다 다급해 보이긴 했지만 어쨌던 이번에도 녀석은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그나저나 햇빛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로 포도에 단물이 들듯 오징어도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스며들 것 아닙니까. 진한 구름이 낮게 드리운 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니 곧 비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온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참 여기도 중부지방으로 봐야 되겠지요. 웬지 중부지방하면 서울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수도권만 중부지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화장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빈 자리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빈 곳이 없으면 문을 두드리다가 까만 비닐봉지를 펼칩니다. 아내도 서너 번 그 대열에 끼었습니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점점 늘어져 가더니 나중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물론 등도 두드려주고 입도 씻겨주고 손도 주물러주고 했지요. 비닐봉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을 승무원에게 갔다 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내주더군요. 하긴 그 비닐봉지,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그토록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사실이 새삼 우스울 뿐이지요. 이제는 좀 웃으시는군요. 제가 좀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하긴 남들도 그러더군요.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거창하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말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나를 내세우는 일에는 좀 쑥스러운 것 같아서 웬지…… 아마나 같은 사람은 선거로 뽑는 선출직에는 절대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수상하다 했는데 이번에는 둘째놈이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비닐봉지와 화장지를 총동원하라 옷을 닦아 주라 사방으로 튀어오른 것들을 닦아내라 안심시키라, 오래도록 소식이 없는 아내를 한동안 찾을 틈이 없었습니다.

겨우 둘째를 추스르고 찾아나선 승객석과 화장실 사이 넓은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서 축 늘어진 사람, 바닥에 아예 대자로 뻗어 누운 사람, 아직도 나올 것이 남아 있는지 엉금엉금 화장실로 기어가는 사람,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비규환은 아닐지라도 그런 측은한 광경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다니. 아마 이런 뜻이겠지요. 즐겁자고 떠난 여행길에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널브러져 있는 꼴이라니. 구태여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악하느니 어찌느니 하는 그런 텔리키트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배를 탔고, 멀미를 했고, 그래서 힘이 좀 든 것일 뿐이고 그마나 멀쩡한 나는 그저 웃었을 뿐입니다. 하나 하나 얼굴을 확인해 가며 어렵게 찾아낸 아내는 화장실 바로 앞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나가면서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반공사진 전시회에 흔히 걸려 있곤 하던 6·25때 학살당한 양민들의 시체 사이를 헤매던 가족들의 사진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에 쓰러져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뒤져가며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건너 뛰자구요? 알았습니다. 좀 얘기가 무거워졌지요? 죄송합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채 나를 보자마자 아내는 아이에 대해 물어봤고 자기는 팬찮으니 가서 아이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자의 모성애란 언제 봐도 눈물이 나올…… 예. 내가 보기에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안심하고 돌아온 자리는 또 다시 토해놓은 오물로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닦여주고 닦아내고 주물러주고 다독겨려주는, 켓바퀴 돌듯 똑같은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마저 완전히 늘어졌

습니다. 속에서 더 나올 것도 없는지 눈을 감은 채 헛구역질만 해댁니다. 그러다가 결국 깜박깜박 졸기 시작했습니다. 측은한 시선을 거두고 그제서야 둘러본 선실에서 그런 와중에 용케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승객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중년의 남자 몇이서 마른 오징어를 안주로 소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질겼던 모양인지 손주가 깊숙히 챙겨줬음직한 과자부스러기와 땅콩도 어디선가 기어 나왔습니다. 겨우 한숨 돌린 나는 침이 꼴딱 넘어갔습니다. '쌈'하고 파도처럼 밀려와서 화끈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주를 마시고 마른 오징어를 씹어대며 다리를 길게 뻗고 싶었습니다. 한 잔 달래, 말어? 겨우 한숨을 돌린 나에게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살다보면 여러 갈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두 갈래 길이 앞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택이 문제인데 그대 움켜잡아야만 하는 순간의 비참하리만치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곤 하지요. 전에 그런 테레비 프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그널음악이 나오면서 두 가지의 선택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한 사람의 행로를 보여주고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쪽의 행로도 마저 보여주는…… 거기에서 순간의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이 재벌이 되기도 하고 동전 한푼 없는 거지가 되기도 하지요. 혹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평생 독신으로 고난에 찬 여정을 꾸려 나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하여간 나에게는 소주를 한 잔 달래서 마시느냐 마느냐 하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게 그래왔던 것처럼 선택이라는 갈등은 이번에도 나를 가볍게 비껴갔습니다. 늘상 나에게는 그래 왔으니까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톱니바퀴를 돌만큼 돌았는지 배의 요동이 차츰 완만해지더니 승무원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굳게 잠겨져 있던 선실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햇살과 푸르른 바닷내는 유쾌할 정도로 상큼했습니다. 선실 바닥을 가득 메운 채 축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얼굴은 누렇게 뜬 채로지만 말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다독이고 추스려서 밟은 땅은 바로, 경상북도에 속한 섬 울릉도입니다. 수십년을 맞물려 돌아 많이 닳아진 톱니바퀴 위를 걷는 것처럼 땅은 조금씩 울렁거렸습니다.

지켜왔다는 듯 사람들은 그리도 재빨리 내렸습니다. 저동항입니까 도동항 입니까, 배에서 내리는 데가? 거기를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갔다 오고 서도 지금도 헛갈립니다. 하긴 서울 사는 김서방보다 서울 안사는 박서방이 서울 지리를, 어딜 가면 진짜 목포 흥탁을 맛볼 수 있고 어디엘 가야 백야의 나라 러시아에서 온 늘씬한 금발 아가씨들과 즐길 수 있는지 더 잘 아는 법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구요?

아마 저동항일 겁니다.

우리가 내린 데가. 부두를 따라 걷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러 일부러 나온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 눈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백개나 되는 수감기관(受監機關)을 감사하러 나간 국정감사반도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귀국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은 우리를 환영하고 있더군요. 아내와 아이는 아직도 빙빙 도는 듯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깝습니까?" 물론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대답이야 뻔하지요. 여기서 아주 가깝다고. 그렇다면 엮어지면 코 닿는다는, 진부하지만 으레 할법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줌마를 뒤따라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겨우 한 걸음씩 떼어 놓았고 자꾸만 뒤쳐지는 우리를 아줌마는 몇번씩 기다려가면서 꾸불꾸불한 좁은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겨우 진정 시키면서 호기심에 이끌려 뛰어 지나쳐왔던 서울역 앞의 그 유명한 양동골목처럼 이리저리 꺾인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사창가 특유의 야릇하고 독특한 그런 냄새는, 물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 봤냐구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라도? 글썩요. 하여간 분명히 저는 거기를 뛰어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지지요.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만 다른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선반 위에 신발을 올려 놓고 선 풍기 하나 달랑 달려 있는 알량한 방에 일단 몸을 누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누어놓고 손가락으로 곰팡내 나는 장판지 무늬를 따라 그리다 보니 답답해졌습니다. 사방으로 좁은 골목길이 뻗어나간 비탈길을 나는 걸어 내려갔습니다. 재를 넘기라도 하듯 한참이나 걸려 올라온 그 길은 그동안 많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해초가 뿌리내린 바닥이 들여다보일 듯 맑고도 푸른 바닷물이 가볍게

출렁이고 있는 부두옆 방파제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그릇 안에서 오징어와 방어가 비좁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볼락이나 열기 같은 작은 물고기들도 간간이 보였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것은 오징어였고 회맛 좋기로 유명한 방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하면 오징어 아닙니까. 호박엿도 유명하지만. 별 생각없이 물어본 어른 팔뚝만한 방어는 횃집이나 수산시장에 비하면 그야말로 거저였습니다. 다시 나는 바람에 흔들리고 갈대가 되었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운명의 화살을 쏘아야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나한테만은 팔지 않겠다고 아줌마들이 난전을 거두지 않는 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유혹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아이는 뻔어 있는데 나만 좋아고 방어로 회를 떠서 소주 한 잔을 훌쩍이느냐 아니면 꼭 참고 그냥 되돌아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배에서부터 시작된, 아니 그보다 연조가 훨씬 오래된 끈질긴 유혹에 진 나는 결국 타협을 했습니다. 애 팔뚝만한 걸로 사가되 멀미로 인한 기력회복에는 방어회가 최고라고, 그리고 절대로 방파제에서 철썩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훌쩍이는 뿔랑꼬리는 떨지 않겠다고, 면박을 당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해가며 돌아간 방에 아내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 나를 찾으러 막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낡은 선풍기와 곰팡내나는 비닐장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좁은 방에 펼쳐놓고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방어회, 그리고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 소주 한 잔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른다면 가난 안 땅에도 아마 방어같은 물고기는 없었을 겁니다. 거기는 황무지같은 사막이라서, 아니 물고기가 있다고요? 물론 거기도 호수나 저수지가 있을테니까 물고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비처럼 하늘에서 마구 물고기가 쏟아졌다구요?

가만 있자, 그 쉬파리란 놈이 도적같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 누워 있을 줄 알았던 아내는 그걸 보자 달려들더니 내가 한 점 먹을 동안 세 점을 먹는 겁니다. 맛 있다, 참 맛 있네, 어쩌면 이렇게 맛 있을까, 어쩐! 나도 한 잔 쥐봐요, 여기 색깔 진한 부분이 뱃살인가 이게 더 맛 있네, 이렇게 맛 있게 먹은 적은 정말 처음이네. 이제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쩌쩌하게 애 팔뚝만한 걸로 살걸. 이미 접시는 텅비어 있었고, 소주 한 병을 미처 비우지 못했습니다. 후회도 이런 종류라면 실컷

하고 싶습니다. 아내도 가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 먹었던 그 맛이
가끔 생각난다고, 진짜로 꿀맛이었노라고.

울릉도 얘기는 그만하고 오징어배 탄 얘기를 하라구요?

알았습니다. 멀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오징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 때는 타자마자 까
만 비닐봉지를 나눠주더니 울릉도에서 돌아올 때는 도무지 나눠줄 생각을
않는 겁니다. 물론 출항하는 날 아침도 안 먹고 미리 시간맞춰 멀미약도
먹고 귀 밑에도 약을 붙이고 화장지도 넉넉히 준비했지요. 다른 사람들도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뱃고동이 우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고통
의 톱니바퀴 위에 었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득달같이 달려가
비닐봉지를 이번에는 왕창 가져올 참이었으니까요. 웬걸, 조바심 속에 한
참을 기다려도 쭈글쭈글한 톱니바퀴는 커녕 울퉁불퉁 굴곡진 스노우 타이
어 위로도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 불쇼이아이스발레단이 매끄러운
얼음판 위를 지치듯 마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덕분에 언체
도

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우아하게 목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봉지를 나눠주니까 각자가 미리 알아서 대비하고
봉지를 안 나눠주니 우아를 떨어도 된다는 건지, 육지에 발을 디디고 나
서야 화가 나는 겁니다. 미리 가을철에는 동해를 흐르는 쿠로시오해류는
어떻게 흐르고 동해해류가 어때서 목호에서 울릉도를 갈 때는 롤링이 심
하다든가 반대로 올 때는 어떻고 또 해류가 바뀌는 겨울에는 어떻다는 얘
기를, 아니 안내방송은 뭐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 소리를 낮추라고요?
예, 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대목이라서... 그래서 항의를
했느냐구요? 피곤하고 또 집까지 갈 길도 먼데 항의는 무슨, 잘 갔다 왔
으면 그걸로 된 거지요.

아까 어디까지……

멀미를 안해서 체질이라고 했다는 부분까지라구요? 에이, 체질은 무슨
체질입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펜대나 굴리다가 어쩌다 하루 오징어잡이 배를 탄 것을 가지고, 감히 제

가 어디 뱃눈 체질이나 되겠습니까. 하여간 태우긴 태웠는데 배멀미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들도 그렇다. 하긴 뱃사람도 아니면서 난생 처음 16시간 이상 파도가 삼킬듯한 오징어배를 타고도 멀미를 안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일찌감치 출항신고를 하고 배는 어김없는 4시 정각에 작은 배들 사이를 빠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처럼 벽면에 커다랗게 '어복(漁福)3호 39.6t, 16:00 디파처(departure)'라고 부두에서 제일 큰 냉동창고건물 흰벽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항구를 빠져 나가 넘실대는 파도를 헤치며 쏜살같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우리 배 뒤로는 고만고만한 배 대여섯 척이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출렁이는 파도는 뱃머리를 집어삼킬 듯 했고 초가집만한 파도는 이따금 배안으로 넘쳐 들어왔습니다. 먼저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풍경보라도 불어서 출항을 못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 딜레이드(delayed)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디파처(departure)는 쏜살같이, 어라이벌(arrival)은 여유있게'라는 신조만이 존재 가치를 지닌 듯 했습니다. 물론 적당한 위치에 이르면 어탐으로 오징어군을 탐지하며 조업할 자리를 찾습니다. 지피에스가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시다. 어탐은 뭐며 지피에스는 뭐냐구요? 어탐은 어군탐지기(魚群探知機)의 줄인 말이고 지피에스(GPS)는 전문용어인데 글로우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위성파…… 오징어군은 있는데 오징어양은 없느냐구요? 농담도 잘 하십니다. 오징어양이 왜 없겠습니까. 그 동안 사이 좋게 용왕배쟁탈 미스 오징어 선발대회를 쭉 열어오다가 미즈 오징어단체연합회에서 들고 일어서서 아쭈마오징어대회를 열고……

알았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말고 시간 없으니까 하루밤새 도대체 몇 마리나 잡고 얼마에 경매됐는지나 얘기하랴구요? 알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해가 바짝 나야 저 놈의 배 탄 오징어를 말릴텐데……

그야말로 부리나케 한 시간 사십분 정도를 달려갔습니다. 뒤를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던 배들은 어느새 사방으로 흩어져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고 한참을 온 것 같았는데 멀리 어슴프레하게 보이는 육지는 뿌연게 가로등을 밝히기 시작했고 양회공장의 높은 굴뚝은 그 사이를 뚫고 희미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 배 주위에는 이미 불을 밝

힌 오징어배들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탄 배도 요란하게 발전기가 돌아가며 오징어집어등을 반 정도 밝혀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완전히 어두워져야 다 밝혀질 모양입니다.

배가 조업할 위치에 닿을 때까지 깨어 있는 사람은 조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실에서 보이진 않지만, 물론 선장과 기관장은 당연히 깨어 있었겠지요. 선장이 잠들어 있으면 배가 어디로 나가며 기관장이 졸다가 기관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하물며 오징어잡이 배 한 척도 이런데 나라를 책임진…… 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손까지 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니까 장(長)자를 붙일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조리장은 파와 무를 썰고 고추꼭지를 따서 씻고 미역을 깨끗히 물로 헹궈내 국을 끓이고 쌀을 씻어 솥에 넣고 알맞게 밥물을 잡습니다. 220볼트 전기밥솥에는 밥을 안치고 국은 LPG로 끓입니다. 그렇게 물어 보실 줄 알았습니다. 배에 110볼트도 아닌 웬 220볼트짜리 전기나 구요?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밥을 대낮같이 밝히는 그 이름까지도 휘황찬란한 동해 오징어잡이배 아닙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AC, DC도 얻고 집어등도 밝혀서 수평선을 그야말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게 만드는, 그래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밤바다를 바라보는 연인들을 낭만으로 인도하는…… 잠깐만 계십시오. 혹시나 했더니 역시 저 놈의 쉬파리가 이번에는 아예 애인까지 데려왔군요.

글자 한 자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쉬파리와 쉬리. 이름만으로는 사촌간인데 사람들에게 받는 대접은 천양지차니,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지극히 미천한 곳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날 문득 깨어나 보니 영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그렇저렇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저 놈은 쉬파리니까 쫓아내야겠습니다. 설혹 저 놈 이름이 쉬리라고 해도 날개 달린 쉬리는 반갑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잡은 오징어를 멋들어지게 말려야 하니까요. 헌데 일기예보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내내 흐리고 비가 오며 게다가 태풍 앤이 북상중이래 구요? 하여간 내가 하는 일은 꼭 이렇다니까. 시집가는 날 등창에다가 맹장수술까지 받은 격이라니까. 태풍 앤? 거, 심술맞은 태풍 이름치곤 곱상하네.

아,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확인 못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필 내가 타고 간 배가 30t이나 40t도 아닌 39.6t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령 10t을 단위로 해서 40t이 되면 면세유 공급이 대폭 줄어든다든가 조선(造船)하고 나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금이 대폭 경감된다든가 혹은 유지 운영중에 어떤 숨은 혜택이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한일어업협정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감척(感隻)될 때 보상금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어떤 분명한 유인(誘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떤 나랍니까. 멀쩡하게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던 단군왕검의 목이 하루아침에 땡겨 잘려 나가는……

이런, 제가 또 삼천포로 빠졌군요. 이젠 뭐라 말씀 안하셔도 자동으로 제 자리로 오겠습니다.

자, 배는 조업할 자리를 잡았고 혼자 깨어 있던 조리장은 그동안 저녁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선원들, 어부들, 아니 뱃사람들은 그때쯤이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들 알아서 뱃전에 줄줄이 널려있는 자동조상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자동조상기란 오징어를 유혹하는 발광체와 덮이 수십개 달린 낚시줄을 자동으로 감았다 풀었다 하는 기겁니다. 말하자면 대낮같이 밝은 빛으로 오징어를 근처로 유인해 놓고 덮이 달린 인조미끼에 덤벼들면 자동으로 잡아올려서 또한 자동으로 수조에 떨구는 기계지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편한 배가 어디 있냐구요?

사람은, 역시 사람이 할 일은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이따금 자동조상기가 엉키면 풀어주기도 하고 손으로 수동식 조상기를 돌리거나 줄을 풀어가며 일일이 미끼를 하나씩 던져서 오징어를 잡아 올립니다. 썰매 없이 돌아가는 자동조상기에서는 가물에 콩나기지만 손으로는 한번에 두세 마리씩 올라옵니다. 칠혹같이 까만 밤바다에 유난히 빛을 좋아하는 오징어는 이 희미한 유혹에 한번 빠져들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끌어올리다 간혹 구사일생으로 떨어져 나가는 놈도 있지만 거의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한번 먹물을 내뿜고 뱃전에 거의 올라왔을 무렵 또 한번 먹물을 내뿜습니다. 모든 오징어가 그렇게 두번을 내뿜냐구요? 아닙니다. 수조에 떨어지는 순간 또 한번 먹물을 내뿜으며 재빨리 동료들 사이로 숨습니다.

도합 세번인데 그렇다고 모든 오징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하루 동안의 짧은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오징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남도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겠습니까. 혼자서라도 묵묵히 그러려니 하고 살다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이해해 줄 날도 있을 거고 그러다보면 활짝 퍼질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제가 몇 살이냐구요? 별걸 다 물어보십시오.

그저 얼굴에 대충 쓰여 있을 짙은 나이니까 그렇게 짐작하십시오.

그런데 하찮은 미물인 지렁이도 뱉으면 꿈틀한다는데 오징어라고 가만 있겠습니까.

몸통이나 다리를 붙잡으면 10개의 다리가 만나는 곳, 아랫도리 한 가운데 있는 날카로운 입으로 깨물려고 덤빉니다. 만약에 물리면? 물론 아프지요. 열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물려서 물려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 말이 났으니 말인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의하면 오징어를 오적어(烏賊魚)라고도 한답니다. 가만히 물위에 둥둥 떠 있다가 그만 먹이감인 줄 알고 덤벼든 까마귀를 양끝에 튀어나온 듯한 유난히 길다란 두 개의 다리로 덤씩 잡아 그 날카로운 입으로 먹는다는 놈 아닙니까. 그래서 오적어라고 한하는데 칠혹같이 새까만 밤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멀리서라도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에는 그만 사족을 못쓰는 모양입니다. 저걸 물까 말까 상당한 갈등도 했겠지요. 심적 갈등에 시달리다 못한 오징어는, 아니 그건 본능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겁니다. 그저 오징어일 뿐이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것을 덤씩 문 오징어는 자신의 성급했던 한순간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먹물을 내뿜는 겁니다. 그것도 두 세번 씩이나……

이런,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는군요.

언제나 그렇듯 반갑지 않은 손님이 먼저 알고 들이닥치는군요. 쉬파리도 그렇고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도 그렇고……그나마 세차게 내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겠지요. 아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베란다 안쪽으로 들이치진 않는군요. 어차피 별 나긴 글렀는데 비 몇 방울 맞았다고 큰 탈이야 나겠습니까. 지가 그래봐야 오징어인데. 덕분에 비가 와서 그런지 쉬파리란 놈은 꿈쩍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두 가지 불

행이 연달아 겹치면 배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럭저럭이라도 우리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집에 빨래라도 널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엉덩이를 들썩거리시게.

실은 저 오징어를 빨래줄에 널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해안에서, 북녘을 지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남쪽의 울진 영덕 아니 부산 어름께까지 온통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말리는 오징어면서도 실제로 줄에 널어 말리려니 눈으로 지나쳐 보던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뒤집어도 보고, 머리를 껴보기도 하고, 길다란 두 다리를 묶어 보기도 하고, 흔히 보는 것처럼 다리 위쪽에 꼬챙이를 꿰어 줄에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리저리 뒤적여가며 해보니 쭈글쭈글하지 않게. 최대한 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안가에 무수히 널려있던 오징어를 꿰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손에 잡힌 듯 눈에는 선하게 익으면서도 막상 실제로는 보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옛말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백견(百見)이 불여일습(不如一習)이라고……

그런데 오징어가 쭈글쭈글하다고요?

그래도 저 정도가 어딥니까. 비록 열 개의 다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양쪽 귀도 축 늘어져 있긴 하지만 저걸 밤새도록 잡아온 것만 해도 대견한 것 아닙니까. 어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뭐든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지요. 자동조상기 펼치는 법, 낙하산같이 생긴 정박용 돛 띄우는 법, 열레를 풀어 잡는 법, 그리고 배를 따서 내장을 빼내서 말리는 법까지. 그럼 뱃사람이 될거냐구요? 글썩요, 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까부터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니 드디어 일어나셨네……

비도 오기 시작하고,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꼭 가야 될 약속이 있는데 다 들으려면 한이 없겠대구요? 처음에 야 배멀미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어디 한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오징어배를 열 몇시간을 타고도 멀미를 전혀 안 했으니 타고난, 그게 그랬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밤이 새도록 오징어를 끌어올리고 배가 출렁거릴 때마다 수조에서는 물

이 흘러넘쳐 바닥은 물바다로 옷은 흠뻑 젖고 그새 시간이 갔는지 해가 빠죽이 바다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지 아침햇살로 사위가 어슴푸레해지기 시작하면 밤새 물레를 돌리던 손목은 빠근해지고 스프르 감겨 들던 눈을 다시 한번 비비면 허리는 그때사 목직해지고……

기어코 가셨네 그랴. 성미도 급하시긴, 문이라도 살살 닫고 가지지.

그 넓은 밤바다에 희미하게 퍼지는 자그만 유혹에 못이겨 용케도 찾아 들던 오징어는 빠알강게 떠오르는 둥그런 아침해를 마중하러 갔는지 수면 위로 퍼지는 햇살이 눈부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는지 낚시줄은 힘없이 올라오고 밤새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하던 자동조상기들도 맥없이 물방울만을 튀겨낼 때 쫓으면 우리도 그만, 유혹의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겨울밤 초롱초롱한 어린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듯 저 멀리 수평선을 점점이 밝힌 불빛마다, 까만 밤바다 속으로 한 토막씩 이야기의 빛을 길다랗게 늘어뜨리면 어디에선가 모여들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그 조그만 빛을 어떻게들 알고 모여 드는지, 아마도 구수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을 쥘니다. 그러려니 하고 미소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흐물흐물한 해파리도, 양증맞게 발을 놀리는 새끼거북도, 호기심에 가득차 배회하는 애방어도 그리고 넓은 바다에 의지할 곳이라곤 없는 커다란 나방까지도 빛을 받아 눈부시게 파란 바다속을 맴돌며 혹은 수면을 스치며 귀를 쫓긋이며 모여 들었습니다. 아마도 두런거리는, 소곤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듣고 싶었던 쥘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다정한 얘기들을.

나는 그리로 뛰어 들고 싶었습니다.

새까만 밤바다에서 유독 빛나게 푸르르던, 새끼방어와 새끼거북과 오징어들만이 유적(幽寂)을 누리던 그곳으로. 날이 새도록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선을 돌리려 해도 자꾸만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뱃전을 짹 잡고 바라보는 그것은 여전히 빛나는 푸르름이었습니다.

<협회 회원>

부칠 수 없는 편지

김 재 학

다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함박눈이 가득 내린 북한산은 어느 때보다 더 깨끗한 순백의 전설을 간직한 듯 하였습니다. 하얀 눈 쌓인 산길에는 먹이를 찾아 나타난 한 마리 작은 새만이 종종이며 이리저리 분주하였습니다. 가끔 왔다갔다 하는 등산객들은 세상을 관조한 듯 참으로 한가로워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70대의 한 할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건강한 걸음으로 눈길을 헤치고 올라와서는 대동문누각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배낭속에 넣어온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꺼내 이내 커피를 타서는 호호 손을 불며 마시는 품새가 보통 이상의 건강한 정신과 의지력을 가진 노인으로 보여 참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젊은 남녀 한 쌍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산에 왔는지 그 눈길을 운동화만 신고는 줄줄 미끄러지면서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신 웃음소리 가득합니다. 홀로 산행을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앞만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그런대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산에서만 느끼는 독특한 정서인가 봅니다.

눈 쌓인 산길을 한참을 걷다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환호하며 우렁차게 출발한 2000년이 힘없이 역사의 뒷쪽으로 스러져 갔어도 바라본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다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고파 눈물짓는 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기대가 컸던 새 천년의 첫해는 다시 IMF시대로 되돌아간 듯 경제의 어려움이 유난히 커 보인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것은 역시 정치로, 밤낮 영일이 없는 권력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상생의 정치를 기대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만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지난해의 커다란 수확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남북간의 해빙무드는 상충된 이해집단의 갈등으로 또 다른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요. 산길은 그런 모든 근심어린 생각들을 쉽게 망각속으

로 물어놓을 수 있어서 아마도 자꾸만 산을 찾아가 봅니다.

건너편 언덕에 바람이 불니다. 슬편한 바람입니다. 고개 저편에 퍼런 눈동자들이 얼룩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멀건하게 바라보며 원망하는지 마주 바라볼 수조차 없는 눈빛입니다.

산길 언덕 위 하얗게 내려앉은 함박눈이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길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산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산이 시작됩니다.

마른 강가 갈대숲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쳐 곤한 잠에 빠져들던 네가 이제는 다시 보이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운 이를 다시 그리워합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해 슬퍼합니다. 그리곤 짓밟힌 자를 죽이려 다시 짓밟아도 세상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던 그 산인데 그 산이 아닙니다. 솔가지 휘늘어진 솜소나무 옆을 지나 한 걸음 옮기는 발길이 왜 이리 천근입니까? 한 마리의 작은 새는 눈썹인 산이 저렇게도 원망스러운 걸……

바람이 불니다. 그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기를 고대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한 줄기의 밝은 빛은 반드시 있는 법이러는데…… 아마도 그것이 신기루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딘가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빛일지라도 그것은 다시 비쳐진다는 작은 소망을 가졌기에 그래도 따뜻함이 있는가 봅니다.

작은 빛은 결국 봄을 가져다 주겠지요. 그러면 노란 꽃도 필 것입니다. 아직은 겨울이어도 겨울을 추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작은 빛이 가져다 줄 봄을 고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썹인 산길이 참으로 말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걷는 걸음이 상쾌해진 것은 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온갖 꽃들이 준비하게 피어나고 가슴 더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아마도 곧 올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요.

밤바람이 흘러간 길을 따라
길도 없는 길을 걸으며
홀로 아리랑을 부르는
아이야
새로운 그 날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매보자

(협회회원)

추억 속에 간직된 속기

전 난 영

모레별판 위에 썰렁하게 있던 국회의사당, 바람도 유난스럽고 안개는 또 왜 그리 심한지 오리무중인 가운데 손에 손잡고 전해성 선생님을 따라 영등포까지 걸어가던 생각이 납니다.

속기를 배웠으니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 었건만 그때 함께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여러 모로 사회에 더 빨리 적응 하고 앞장서 가는 것을 발견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곳이니만치 힘들어도 힘들다 생각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야지 마음먹고 집에까지 싸들고 다녔지만 번문할 속기노트가 7권째 쌓이 던 날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그때는 녹음도 없었으니 과연 번문이 될까 하는 불안감으로 잠도 설쳤지요.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높아진 인기(小委까지 속기를 해야 한다니 뭐라 나?)가 떨어질 줄 모르는 것은 그래도 궁지로 버티겠지만 품격이 따르지 않으니 "아, 고된 몸과 마음이어!"

속기인들의 집단을 뭐라고 표현할까.

끈기 있고 성실하고 머리도 꽤 괜찮은데 세상살이에는 좀 어리숙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의 집단?

하야간 회의만 시작되면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아니 알면서도) 죽으 라고 일에 매달리는, DNA가 몸속에 흐르는 공동체지요.

20년간 근무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거의 안했지만 혹시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시무식 자리에 설 때마다 했는데 정말 1998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 가득히 안고 나온 국회이기에 지금도 문득문득 가고 싶습니다. 반겨줄 이 누구관데 그리도 마음이 설레는지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 모든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나무들, 잔디, 가로등, 그저 덩치 큰 돌집이던 국회의사당 건물도 마냥 정답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무실에 들어서려면

쑥스러워 머뭇거리지만 그것도 몇몇 사람들과 악수하고 나면 어느새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듯 자연스럽게 푸근해짐을 느낍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우리 반 아이들은 유난히 말이 많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제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저 부둥켜안고 뛰고 깔깔깔 재잘재잘…… 학기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순전히 제가 다 버려놓았습니다.

교사임용고시 합격통지서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던 기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의 선생님이실까……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마음놓고(웃이나 손에 무엇이 묻었든, 자기들의 형편이 어떻든) 달려와 품에 안길 수 있는 선생님. 또 예수님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항상 허용하실 것이고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화나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시겠지. 아이들의 내면에 숨겨진 엄청난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시며 단순히 상상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실 것이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교직이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만큼 농도 짙게 하고 싶어서 가꾸만 마음이 앞섰습니다. 발령받고 대충 짐을 싸서 집을 나서던 날, 남편의 눈에 그런 모습이 비쳐졌는지 한마디 조언을 들었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 실패해. 그저 교사 일을 즐겁게 해. 그리고 자기연수를 끊임없이 해서 전문가가 되는거야. 그러면 점점 좋은 교사가 되어갈 거야."

어디서 본 것도 아닌데 즉흥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맺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것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무척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새 반을 맡았을 때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만 신중히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기와 독서록, 글짓기 지도가 잘된 것 같습니다. 독후감은 편지 쓰기, 만화로 그리기, 퀴즈내기, 동시로 쓰기 등 다양하게 말입니다. 여러 명이 작문, 특히 운문(시)을 아주 좋아하고 잘 쓰게 되었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 동시동아리가 활동을 개시했는데 어떤 작품들을 만들지 궁금합니

다. (수학동아리, 피구동아리, 노래동아리도 있습니다.)

말이 없고 따돌림과 놀림을 받던 선영이가 '사은의 편지쓰기'에서 초등부 최우수상(충남도지사상)을 받고 이제는 아이들 속에서 섞여 지내는 것을 볼 때,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끝까지 따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고집으로 친구들을 멀리 도망가게 하고 선생님들을 지치게 하던 범기가 다 소곳해진 모습으로 예스맨이 되고 궂은 일에 앞장서 친구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수업시간마다 확인을 했더니 천표의 성적이 1학기 때보다 평균 15점이 올라간 것을 볼 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눈물샘에 다다릅니다.

국어·사회는 조별로 토론·조사학습으로, 수학은 수준별 학습으로 자연은 실험으로 그리고 제가 맡은 음악은 음악실에서 마음껏 노래와 악기연주로 진행합니다. 학년초에는 예습을 그토록 어려워하시더니 숙제·예습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시간에 배울 요점을 퀴즈로 내고 퀴즈의 답이 들어있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추첨하여 사탕 1개씩 주기를 하면 사탕 1개에 목숨을 걸지요(이유는 군것질을 절대 금하고 오직 상으로 받은 것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복습은 주로 골든벨로 합니다. 때때로 아이들 스스로 골든벨 문제를 내도록 하면 더욱 신나지요. 여기서도 사탕은 무지무지 인기가 있는데 치아 건강을 생각해서 인색하게 줍니다.

이제는 좀더 연구·조사해서 좋은 방법으로 재미있게 지도해야 되겠는데 잡무가 많아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방학이 유일한 기회인데 연수, 일직을 빼면 얼마 안 남습니다.

우리 학교는 체육으로 소문난 학교입니다. 야구부도 유명하지만 야구장이 교내에 있고 충남 초등부 줄넘기대회에서 는 상을 휩쓸었지요. 12종목의 민속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육을 잘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2001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음악교육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합주부, 새로 신설된 바이올린부, 앞으로 구성할 첼로부를 담당하게 될 텐데 힘들어도 교내음악경연대회를 한번 개최해 봐야겠습니다.

속기는 손 터는 날이 있지만 학교일은 손 터는 날이 없다는 것(손 털고 여유를 부리며 소설책 한 권쯤 읽고 싶군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많이 힘들 때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 마음만 같아라."

(양성소 9기 협회회원)

전난영 회원은 1978년부터 1998년까지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20년간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후 충남당진 합덕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아래 글은 충남도정신문 '사은의 편지 공모 최우수작(초등부)'으로 입선한 김선영 학생(합덕초등4년)의 글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난영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저는 3학년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시다. 이렇게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것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였습시다. 선생님께서 "선영이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으니까 이번에 선생님께 쓰는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는 용기나 나지 않았습시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하고 싶은 얘기, 또 선생님과 있었던 즐거웠던 얘기들을 쓰면 된다고 하셔서 써보겠다고 결심했습시다.

4학년이 되고서도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따돌렸고 방귀냄새 난다고 흉보고 욕하고 했습시다. 제게는 임란선이 유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4반이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시다. 이제는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생각했습시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선생님 책상을 청소하게 하시고 선생님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시다. 저는 선생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시다.

제가 눈이 가려워서 자꾸 비비니까 하루는 눈을 봐주셨습시다. 아래 눈썹이 눈동자를 찌른다고 하시면서 이대로 두면 눈동자에 상처가 많이 나

서 앞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눈이 가려울 때면 마구 비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족집게로 제 아래 속눈썹을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또 가렵고 간지러워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럴 때마다 뽑아주시면서 너무 짧아서 살을 찢을까봐 조심스럽다고 아주 한참이 걸려서야 뽑아주셨습니다.

친구들은 곁에서 '나도 엄마가 뽑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너무 바쁘셔서 제 얘기를 들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음에도 또 담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교의 약속을 꼭 지킬 것입니다. 이번 1학기 때 꼭 학력상을 타서 친구들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한 약속을 제 맘속에 꼭 간직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학습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소풍가던 날은 너무나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풍도 못가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꼭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일 좋은 앞자리에 저를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선생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였습니다. 또 친구들이 맛있는 것을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며 그렇게 신나는 소풍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때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선생님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잘하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2000년을 보내며……

박 정 현

올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유난히도 기억될만한 해가 될 것 같다. 우선은 20대 후반으로 들어선 해이기도 하고 나의 거주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다시 바뀌게 된 해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국회에 입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제로 나의 서울입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물론 속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입버릇처럼 "국회에 시험을 치기만 하면 들어갈 것이다"라고 큰소리치긴 했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러본 일종의 호기였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위로 정도였을 것이다.

속기를 시작한 것이 96년도 중반이었고 97년도에 시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발표가 나지 않았다. 99년 말까지만 해도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씁쓸한 답변뿐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고 3월경엔 컴퓨터에 도전해 보겠다고 학원까지 등록해 버린 상태였다.

그런데 그 후 국회에 속기사 채용계획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학원등록한 것을 연기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 당시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에 비해선 합격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는 적었겠지만 속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국회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험을 쳐서 결국 합격을 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법원속기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다들 사법기관에 있다가 입법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법원에서의 속기사의 입지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보

다도 동료 속기사들이 기뻐해 주었다.

다들 처음 서울에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대체적으로 서울에 대한 인상은 좋다. 경상도의 소박하고 무뚝뚝한 면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고 나 역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불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람들의 예의바르고 부드러운 인상은 기분 좋게 느껴졌다.

실기시험을 치러 국회로 왔을 때도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어 파일이 다 날아가버린 한 응시자를 위해서 그 사람만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배려는 정말 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격시험을 치를 경우 컴퓨터 자체의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응시자에게 책임을 물어 불합격처리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감독관과 마찰을 빚었던 적이 있는 나로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감독관님은 "합격하게 되면 같이 일할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데 배려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셨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도 아니었고 그렇게 모든 응시생의 양해를 구하는 것을 보고 "역시 국회는 다르구나.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실기시험 당시까지도 들지 않았던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최종 합격발표 당일까지 계속되었고, 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는 무척이나 기뻐다. 또한 입사 후에 신입실무자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국회의 배려에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다녀오고 정기국회가 지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 어느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신참이지만 다른 직장에 비해 유난히도 가깝게 느껴지는 선·후배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니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워낙 속기라는 업무가 다른 사람과의 협력관계가 필요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만큼 선·후배간에 예의를 지키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한 협력관계 속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속기사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입이라고 어리광 부리고 선배님들한테 미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속기사로서 제 할일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입사 이래 계속된 회의와 항상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속기과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

2001년 새해가 밝아온다. 이제는 뭔가 새롭고 더 나은 곳을 찾고자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 자리에서 좀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다짐을 해본다.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던 내 자신을 보면서 단지 "그래, 이것이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더 발전되고 나은 모습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가오는 새해 벽두부터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올해도 저 눈처럼 깨끗하고 따뜻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해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련다.

새내기 박정현 화파이팅

(국회사무처 속기1과2담당)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주 정 순

"만약 이번에 안 된다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직장에 다녀야만 할 것이다,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가족들 보기가 부끄러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종 2차 발표일인 자정이 다가올 무렵부터 나는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정이 됐다. 가슴이 방망이질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알아봐 달라고 언니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수험번호는 01038, 언니! 만약 나 떨어졌으면 전화하지 말고 붙었으면 연락해 줘!"

10분 뒤에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설마설마 했는데 안 됐나 봐, 어떻게 하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스치고 지나갔다. 허탈감, 좌절감……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드디어 15분 뒤 전화가 왔다. 접속이 잘 안됐다니……

와우! 드디어 내가 해냈다. 온 세상이 내 것만 같았다. 내가 한없이 자랑스러웠고 밤새 졸린 언니를 붙잡고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털어 내느라 날이 새는 줄 몰랐다.

IMF가 시작되고 98년 2월 졸업한 나는 6개월여 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러 인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서야 가까스로 구한 중소기업. 그러나 수출도 잘 되고 꽤나 탄탄한 회사였다.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셨고 열심히 다니길 원하셨다. 그런 회사를 몇 달 다니다 이게 아닌 듯 싶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속기라는 일에 꽤나 흥미가 있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다니는 동안 학원에서의 진도도 꽤 빨랐고 선생님들께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난 더욱 열심히 했고 드디어는 부모님께 다른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관두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나 열심히 다닐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언제 또 취업을 할 것이냐며 부모님께서

우려가 크셨고 반대하셨지만 난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태껏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적이었던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디서 회사를 관둘 용기가 생겼을까? 아마 그때 부모님 말씀대로 그냥 회사만 다녔다면 지금쯤 마지못해 다니는 직장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 일견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진다.

2000년10월19일 1년의 업무 중 제일 힘들다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선배님들로부터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난 무척 긴장했고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두렵기까지 했다.

내가 속한 곳은 재정경제위원회였다. 첫날부터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가뜩이나 떨리는데 그것도 지방으로 가다니…… "난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수십 번 하고 나서야 조금은 진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3개 기관에다 기계와 그 밖의 부속품들을 가지고 시간에 쫓기면서 뛰어다니던 국정감사 첫날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어 주저앉고만 싶었다.

'이래서 선배님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구나!'

이튿날, 아직도 서툴고 미숙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어 견뎌내지 못할 것만 같았던 첫날보다는 좀 나왔다. 소속의원들의 성향이나 말투에 익숙해지면서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하지만 하루하루 날짜가 보태지면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속기라는 일에 조금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동기들과 전화 통화로 한참동안 닉두리를 한 후에야 조금은 내 마음은 진정될 수 있었고 우리는 같이 고생하자며 격려를 해주었다.

"동기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휴……"

일에 지쳐서 기계처럼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나에게 가끔 뉴스에서 나를 보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회의장에서 나를 좀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루하루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그만큼 내 어깨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속기라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로구나."

내가 한 자 한 자 기록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내가 만든 원고가 한 나라의 정치 쟁점화가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만큼 일에 책임감이

더해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국감기간 중 담배인삼공사에 국감을 나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수백 명의 농민들이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난생 처음 뉴스가 아닌 현장에서 우리 버스를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농민들의 절실한 모습에 나 또한 더욱더 엄숙해져갔다.

마침내 담배인삼공사의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방금 전까지 절실히 외쳐 대던 농민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록하는 이것이 곧 역사의 산물임을 생각하니 의원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일간의 첫 국정감사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참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입사 초에 나는 이제 국회에 들어왔으니 "나는 국회 속기사야"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정한 속기사는 단지 말만을 빠르게 기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히 기록함은 물론 회의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회의진행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또한 첫 국정감사는 내가 국회 속기과의 새내기 속기사로서 한 일원임을 온 몸으로 실감케 한 시간이었다. 지금은 첫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친 내가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된다. 특히 처음에 내가 속한 계의 선배님들과 많이 낯설었는데 국정감사를 다녀온 후에는 한술밥을 먹는 가족같은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막내로서 한없이 미숙하고 서툰 나를 잘 이끌어 주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선배님들, 앞으로 더욱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미숙하지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저도 빨리빨리 배워서 2001년 국정감사때에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선배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

(국회사무처 속기2과3담당)

< 제184회 이사회 >

제184회 이사회가 2000년1월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제부의 의회속기사부 및 NCRA참가보고, 1999년도 잔여사업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회원부로부터 속기정보화사업, ▲홍보부로부터 속기계 발간사업, ▲연구위원회로부터 연구논문집 발간사업 등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 제185회 이사회 >

제185회 이사회는 2000년4월17일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 ▲2월25일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로부터 대한속기협회 주관 속기관련 인증시험 신설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고
- ▲3월2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4,945만 4,000원)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 ▲3월15일 인터스테노 사무총장 구출러로부터 2000년9월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실리에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보 받았음을 보고 하였다.

다음으로 2000년도 사업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 ▲사업부로부터 속기학술세미나와 관련하여 기간을 6월10일, 11일로 잠정결정하고 장소는 미정,
- ▲국제부로부터 시실리에서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협회사정으로 불참통보를 하기로 하고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참석인원과 시기 및 체류일정에 관해서는 인원선정위원회(이사장, 이승철이사, 홍순관이사, 신희동이사, 김점동이사)에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 ▲회원부로부터 DB구축에 대한 자료와 내용점검을,
- ▲홍보부로부터 소식지 및 속기계 발간사업 현황을,
- ▲총무부로부터 속기인 주소록 재발간사업을,

- ▲연구위원회로부터 속기연구논총집 발간사업을,
- ▲자격심사위로부터 속기경기대회의 활성화방안 등에 관한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

기타 사항으로는 전국지방속기사협회의 속기관련 인증시험 시설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평가내용, 시행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제186회 이사회 >

제186회 이사회는 2001년1월1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열렸다.

제34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2월10일(토)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2000년도 결산서에 관해 총무이사로부터 1억12만6,809원의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김선필 감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듣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해 총무이사로부터 1억4,823만8,057원의 예산안 개요설명을 들은 후 심의한 결과 당 협회의 국고보조 예산요구액 6,086만3,000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기타사항으로서 임기만료된 회장단 이하 이사진의 임원선임을 위해서 당 협회 원로와 현 이사진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회원동정

<승진 · 축하합니다.>

- 최예숙(속기1과)·권영찬(속기1과)·김란희(속기2과) → 속기사무관 승진(00.5.1)
- 김기영(국회사무처)/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전문위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00.7.28)
- 홍순관(국회사무처)/서기관→부이사관, 속기1과장(00.7.28)
- 이주성(국회사무처)/속기사무관→서기관, 속기1과1담당(00.8.1)
- 남미경, 서현숙(국회사무처)/속기주사보→속기주사(00.9.1)

<정년퇴임 · 수고하셨습니다.>

- 황인하 이사관(국회사무처)/(006.30)
- 최황수 이사장(국회사무처)/(00.12.31)

<명예퇴직/퇴직 · 수고하셨습니다.>

- 양진숙(국회사무처)/(00.8.10)
- 김수복, 이시정(국회사무처)/(00.10.5)

<임용 · 축하합니다.>

- 김희준, 박정현, 박윤희(국회사무처)/속기1과(00.8.10)
- 유경화, 김송화, 주정순(국회사무처)/속기2과(00.8.10)

<전보 · 수고하셨습니다.→반갑습니다.>

- 하양배(국회도서관)/총무과장→색인과장
- 노희남(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장→호남지역본부장

<파견 · 수고하세요.>

- 조미경(국회사무처)/속기1과→대한민국헌정회(00.6.1)

<복귀 · 반갑습니다.>

- 황은하/대한민국헌정회→국회사무처 속기1과(00.6.1)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찬·최예숙·김란희 속기사무관(국회사무처)/신규관리자과정
(00.7.10~7.28)
- 주정순·김희준·유경화·김송화·박윤희·박정현(국회사무처)/신규실무자과정
(00.8.21~9.8)
- 홍기표 회원/유럽연수(00.12.27~01.1.5)

<수상 · 축하합니다.>

- 박정호 서기관, 이경식 속기사무관(국회사무처)/대통령표창(01.1.2)
- 조신자(국회사무처)/국회의장상(01.1.2)
- 조대성(국무총리실)/대통령표창(01.1.2)
- 안기철(국회사무처)/모범공무원상(01.1.2)

<결혼 · 행복하세요>

- 이범준(국무총리실)/(00.9.24)

<기타소식>

- 지대섭 회장/국회의원 해임(00.2.7)
- 권용태 부회장/강남문화원장 재선임(01.31)
- 김춘원 회원/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00.2.25)
- 송기철 회원/국우회 부회장으로 선임됨
- 김덕진·박금선 회원/국회사무처 속기직렬을 대표하여 직장협의회 협의
위원으로 선출됨
- 허광현 회원/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00.11.11)
- 유순태 회원/예비직장인을 위한 대학실무교재<대학실용국어> 편저

Alt-X를 하기 전에

속기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의 있었기에
서른 일곱 번의 속기계가 탄생할 수 있었으리라.
이제 그 바톤을 후임자에게 넘기며 더 큰 사랑과 봉사를 기대한다.

-仙-

네 권의 속기계를 만드는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이 순간,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아마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美-

속기계를 통해 속기인들의 생각과 애환을 마음껏 전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아쉽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언제나 외치고 싶은 한 마디, "속기인 여러분 파이팅!"

-賢-

이번이 처음이고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후기를 쓰라니 난감하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후기를 대신해 볼까?

-崔-

끈질기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회의의 연속,
잊어 버릴 만 하면 한 번씩 "속기계 만들어야 하는데....."하는
장미경 선배의 근심 섞인 말에 "이렇게 바쁜데 어느 세월에 속기계를 만든다
지....."하며 걱정 반, 무관심 반 뒤편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결국 나와 버렸다. 놀랍고도 신기하다. 하니까 되는구나!
노심초사 애쓴 장미경 선배와 정성스레 원고를 써주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淑-

속기계가 아니었음
내가 기자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을까?
"정기자!" 히히히.

-香-

■ 발행

속기계 36호(1999년)

발행 : 1999년 12월 31일

발행인 : 지대섭

편집인 : 김선옥

기자 : 장미경/ 서현숙/ 이시정/ 정숙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인쇄처 : 도움사 (02-998-8777~9)

전화 : (02)788-2371~7

FAX : (02) 788-3560, 3561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HomePage : <http://www.steno.or.kr>

(비매품)

<- 속기요금표->

1995. 2. 8 시행

속기기본료	1시간당	300,000원
녹음재생	1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1시간당	350,000원
외국어속기	1시간당	400,000원
요점속기	1시간당	2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유지작성료는 상시 요금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 협회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 속기사의 신조 >

-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국회사무처 속기과 내)
전화 : (02) 788-2471~6.2377